

예비 고3을 위한 EBS 입시자료집

-2023·2024학년도 입시정보 수록-

※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 요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EBSi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최신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차례

I . 2023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5
1.1. 2023학년도 대입 일정	6
1.2. 2023학년도 대입 주요사항	7
1.3. 2023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11
1.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징	12
II .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21
2.1.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22
2.2. 대입 성적자료의 이해	27
2.3. 교과 및 비교과활동 준비	32
III . 2023학년도 수시전형 기본사항	37
3.1.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	38
3.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43
3.3. 면접의 이해	50
3.4. 지역인재전형의 이해	52
3.5. 논술전형의 이해	54
IV . 2023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	63
4.1. 정시모집의 이해	64
4.2. 정시전형에서 영어성적의 영향	73
4.3. 추가모집의 이해	75

V .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77
5.1. 주요 발표 내용	78
5.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방안	79
5.3.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89
 VI. 과목별 고득점 전략	 91
6.1. 국어	92
6.2. 수학	98
6.3. 영어	103
6.4. 한국사	108
6.5. 사회탐구	111
6.6. 과학탐구	118
 VII. EBS 고교강의 활용법	 127
7.1. 예비 고3(고1·2)을 위한 필수 강좌	128
7.2. 입시 및 수시 강좌	130
 VIII. EBSi 서비스	 133

I

2023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I. 2023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2023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1.1. 2023학년도 대입 일정

구분		내용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2. 09. 13.(화) ~ 17.(토)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2.07.04.(월)~08(금) 또는 2022.09.13.(화)~17.(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2. 09. 18.(일) ~ 12. 14.(수)(88일)
	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까지
	합격자 등록	2022. 12. 16.(금) ~ 19.(월)(4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2. 12. 26.(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2. 12. 27.(화)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도 동일함
	전형기간	가군 2023. 01. 05.(목) ~ 12.(목)(8일)
		나군 2023. 01. 13.(금) ~ 20.(금)(8일)
		다군 2023. 01. 25.(수) ~ 02. 01.(수)(8일)
	합격자 발표	2023. 02. 06.(월)까지
	합격자 등록	2023. 02. 07.(화) ~ 09.(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02. 1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추가 모집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3. 02. 17.(금)
	원서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등록 기간	2023. 02. 28.(화)

1.2. 2023학년도 대입 주요사항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모집인원 증가, 수시모집 선발비율 전년도 보다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34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3학년도	272,442명(78.0%)	76,682명(22.0%)	349,124명
2022학년도	262,378명(75.7%)	84,175명(24.3%)	346,553명
2021학년도	267,374명(77.0%)	80,073명(23.0%)	347,447명

나.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비율 전년도 보다 증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비율이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7.7%인 236,419명을 선발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54,464명(44.2%)	148,506명(42.9%)	146,924명(42.3%)
	학생부(종합)	81,390명(23.3%)	79,503명(22.9%)	86,083명(24.8%)
정시	학생부(교과)	252명(0.1%)	201명(0.1%)	270명(0.1%)
	학생부(종합)	313명(0.1%)	347명(0.1%)	424명(0.1%)
합계		236,419명(67.7%)	228,557명(66.0%)	233,701명(67.3%)

※ 단,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 수능 전형 선발비율 증가

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

- 수시 모집인원 272,442명 중 235,854명(86.6%)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
- 정시 모집인원 76,682명 중 69,911명(91.2%)을 수능 위주로 선발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위주(교과)	154,464(44.2%)	148,506(42.9%)
	학생부 위주(종합)	91,390(23.3%)	79,503(22.9%)
	논술 위주	11,016(3.2%)	11,069(3.2%)
	실기/실적 위주	21,014(6.0%)	18,817(5.4%)
	기타(재외국민)	4,558(1.3%)	4,483(1.3%)
소계		272,442(78.0%)	262,378(75.7%)
정시	수능 위주	69,911(20.0%)	75,978(21.9%)
	실기/실적 위주	6,150(1.8%)	7,470(2.2%)
	학생부 위주(교과)	252(0.1%)	201(0.1%)
	학생부 위주(종합)	313(0.1%)	347(0.1%)
	기타(재외국민)	56(0.0%)	179(0.1%)
소계		76,682(22.0%)	84,175(24.3%)
합계		349,124(100%)	346,553(100%)

라.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 감소

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53명 감소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36개교	11,016명	36개교	11,069명	33개교	11,162명

마.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증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약 1,733명 증가

구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정원 내	31,027(8.9%)	29,103(8.4%)	23,344명(6.7%)
정원 외	24,252(6.9%)	24,443(7.1%)	24,262명(7.0%)
합계	55,279(15.8%)	53,546(15.5%)	47,606명(13.7%)

※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등

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증가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 전년도 대비 452명 증가

구분	대학 수	모집인원(명)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3학년도	93개교	21,235	6.1
2022학년도	92개교	20,783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	4.8

사. 6년제 약대 학부 입시 선발

2023학년도 약학대학 모집 현황 - 수시 56.2%, 정시 43.8%

대학	수시				정시			합계
	교과	종합	논술	소계	가	나	다	
가천대	3	12		15	15			30
가톨릭대	5	10	5	20	10			30
강원대	26	9		35	15			50
경북대	10	15		25	5			30
경상대	15	7		22	8			30
경성대	30			30	20			50
경희대	4	14	8	26		14		40
계명대(약학)	10			10			5	15
계명대(제약)	10			10	5			15
고려대(세종)	15		6	21	9			30
단국대(천안)		8		8	22			30
대구가톨릭대	25	5		30		20		50
덕성여대	15	25		40	40			80
동국대(일산)	3	9	6	18		12		30
동덕여대	24			24		16		40
목포대	17	3		20	10			30
부산대	10	16	10	36		24		60
삼육대	12	6		18			12	30
서울대		37		37		26		63



대학	수시				정시			합계
	교과	종합	논술	소계	가	나	다	
성균관대		30	5	35	30			65
숙명여대	5	22		27		53		80
순천대	10	3		13			17	30
아주대		15		15			15	30
연세대(송도)	6	7	5	18	12			30
영남대	42			42		28		70
우석대	28			28		12		40
원광대		30		30		10		40
이화여대(약학)		20		20		70		90
이화여대(미래산업)		10		10		20		30
인제대	18			18	12			30
전남대	36	4		40		20		60
전북대	19	2		21		9		30
제주대	20			20			10	30
조선대	45	6		51	24			75
중앙대	6	27	22	55	65			120
차의과대	8	10		18		12		30
충남대	25	5		30		20		50
충북대(약학)	8	7		15	10			25
충북대(제약)	8	7		15	10			25
한양대(에리카)	5	9		14		16		30
합계	523	390	67	980	322	382	59	1,743

※ 출처 :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4.29.

1.3. 2023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가. 수시/정시 모집인원의 변화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인원은 약 272,442명으로 약 78.0%이고, 정시 모집인원은 76,682명으로 약 22.0%이다. 따라서 현 고3이 치르는 2022 대입과 비교할 때 수시 비율은 2.3% 증가한다.

구분	대상 학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23학년도	현 고2	272,442	78.0	76,682	22.0	349,124
2022학년도	현 고3	262,378	75.7	84,175	24.3	346,553
증감		+10,064	+2.3	-7,493	-2.3	+2,571

나. 전형별 모집인원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은 5,958명 증가(42.9% → 44.2%)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1,887명 증가(22.9% → 23.3%)한다. 논술전형은 (3.2% → 3.2%)로 53명 감소한다. 정시 수능 위주 선발은 2022학년도 대입에 비해 모집인원이 6,067명 감소(21.9% → 20.0%)한다.

〈 전형별 모집인원 변화〉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54,464	44.2	148,506	42.9	5,958
	학생부(종합)	91,390	23.3	79,503	22.9	1,887
	논술 위주	11,016	3.2	11,069	3.2	-53
	실기 위주	21,014	6.0	18,817	5.4	2,197
	기타(재외국민)	4,558	1.3	4,483	1.3	75
소계		272,442	78.0	262,378	75.7	10,064
정시	수능 위주	69,911	20.0	75,978	21.9	-6,067
	실기 위주	6,150	1.8	7,470	2.2	-1,320
	학생부(교과)	252	0.1	201	0.1	51
	학생부(종합)	313	0.1	347	0.1	-34
	기타(재외국민)	56	0.0	179	0.1	-123
소계		76,682	22.0	84,175	24.3	-7,493
합계		349,124	100	346,553	100	2,571



1.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사항

2023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이다. 수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목)에 시행되며,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통보된다.

1)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출제범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수학		30	5지선다형, 단답형	2,3,4	100점	100분	공통 : 수학I,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 영어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 구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1과목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1+성공적인 직업 생활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제2외국어 /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개 과목 중 택 1

2) 한국사 및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등급 체계(원점수 기준 구분) : 절대평가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영어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제2외 /한문	50~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0

3) 국어, 수학, 탐구영역 등급 체계(백분위 기준 구분) : 상대평가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나. 탐구과목 선택

어떤 탐구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 4개의 기준을 활용해보자. 첫째,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응시 인원이 많았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응시 인원이 많을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신 시험을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대학에서 지정하는 과목이나 지망 학과와 연관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정해졌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전공적합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논·구술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사회탐구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사회탐구 선택과목 응시 추이를 살펴보면 2020학년도 수능에 이어 2021학년도에도 ‘생활과 윤리’를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였으며, ‘사회문화’와 ‘한국지리’가 뒤따랐다. 가장 적은 인원이 응시한 과목은 ‘경제’였다.



과목	2020 수능(명)	2021 수능(명)	2020 비율(%)	2021 비율(%)
생활과 윤리	146,832	129,937	58.5	59.6
사회문화	139,144	124,711	55.4	57.2
한국지리	62,963	44,832	25.1	20.6
윤리와 사상	31,897	29,063	12.7	13.3
세계지리	40,809	35,186	16.3	16.1
동아시아사	27,172	24,423	10.8	11.2
정치와 법	27,052	23,382	10.8	10.7
세계사	19,839	19,055	7.9	8.7
경제	5,661	5,076	2.3	2.3
사탐 응시 인원	251,036	218,154		
수능 응시 인원	484,737	421,034		

2) 과학탐구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과학탐구 선택과목 응시 추이를 살펴보면 2020학년도 수능과 달리 2021학년도에는 ‘생명과학’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였으며, 지난 수능 대비 ‘지구과학’, 지구과학Ⅱ 과목 선택자 수가 많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장 적은 인원이 응시한 과목은 ‘물리Ⅲ’였다.

과탐	2020 수능(명)	2021 수능(명)	2020 비율(%)	2021 비율(%)
지구과학	148,540	116,729	69.9	62.1
생명과학	128,033	117,487	60.3	62.5
화학	73,663	71,815	34.7	38.2
물리	54,792	53,286	25.8	28.3
생명과학Ⅱ	7,190	6,585	3.4	3.5
지구과학Ⅱ	6,656	4,056	3.1	2.2
화학Ⅱ	2,934	2,984	1.4	1.6
물리Ⅲ	2,738	2,796	1.3	1.5
과탐 응시인원	212,390	187,987		
수능 응시인원	484,737	421,034		

※ ‘비율(%)’은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 각 과목 응시자의 비율을 의미함.

다. 제2외국어/한문 선택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약 13%(54,851명)가 선택하였다. 이 중 69.6%의 수험생이 ‘아랍어’를 선택했으며, ‘베트남어’의 선택자 비율은 1.4%로 조금 감소했다. 작년 수능 대비 ‘일본어’ 응시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아랍어’ 응시자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아랍어’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추세인데,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랍어’는 평균점이 낮아,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 1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대학 중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이라면 ‘아랍어’ 선택 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2022 대입부터 제2외국어/한문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1)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 수의 변화

과목	2020수능(명)	2021수능(명)	2020비율(%)	2021비율(%)
아랍어	47,074	38,157	72.3	69.6
일본어	5,567	5,626	8.6	10.3
중국어	3,892	3,707	6.0	6.8
한문	2,772	2,631	4.3	4.8
베트남어	1,527	764	2.3	1.4
프랑스어	1,200	1,209	1.8	2.2
스페인어	1,267	1,265	1.9	2.3
독일어	1,192	998	1.8	1.8
러시아어	620	494	1.0	0.9
제2외국어/한문 선택인원	65,111	54,851	100.0	100.0

라. 대학별 계열별 수능 과목 지정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의 공통+선택형 구조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수능 과목 지정 여부를 발표하였다.

1)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선택 현황

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대학 수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택 1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육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	183개교



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대학 수
수학		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자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서울기독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자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송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육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육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칼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미적분/기하 중 택 1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58개교
	미적분/기하/ 확률과 통계 중 택 1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육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육대, 광	175개교

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대학 수
		주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자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송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강원),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육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육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3개교
탐구	사회탐구	대구한의대, 인제대	2개교
	과학탐구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강원),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62개교
	사회/과학탐구 중 선택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육대, 광운대, 국민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96개교



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대학 수
		꽃동네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교육대, 대전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자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육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주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104개교
	사회/과학/직업 탐구 중 선택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경남대, 경동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육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고신대, 공주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광주여자대, 군산대, 극동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교대, 서울대, 서울여자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세명대, 세한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동대, 안양대, 영산대, 용인대, 울산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중부대, 중원대, 청운대, 청주교육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한국교원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성서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호원대	

※ 수능 위주/일반전형/정원 내 입력자료 기준

※ 수능 영역별 선택과목은 선발 모집단위에 따라 대학명이 중복될 수 있음

※ 수능 영역별 지정과목 현황으로 영역별 상위 성적 선택인 경우 제외

출처 : 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21.4.29)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대학별로 요구하는 수능 선택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요구 과목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하려는 계열에 따라서도 고려할 요소가 있다.

2) 2023학년도 자연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국어	지정X	모든 대학
수학	기하 또는 미적분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탐구	과탐 2과목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강원),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사탐 2과목	대구한의대, 인제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정 과목이 없기에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 대신 과학탐구를 응시하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선택과목 결정 시 유의해야 하는데, 서울권 주요 대학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수학 영역은 기하/미적분을,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할 것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은 목표 대학과 학과를 고려해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Ⅱ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II.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수험생이 수시, 정시 그리고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중 어느 모집 시기에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적이다. 이때 성적은 내신과 수능을 말한다. 대학마다 성적 산출 방식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1.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가. 일반고등학교 교과목 구성(보통 교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I,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음악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 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진로 선택과목은 3과목 이상 선택

나. 교육과정 선택 시 유의 사항

1) 위계성을 가지는 선택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위계를 갖춘 과목은 I과 II로 표시된 과목들이다. 구체적으로 영어과 영어Ⅱ, 과학과 과학Ⅱ, 제2외국어과 제2외국어Ⅱ, 한문과 한문Ⅱ는 위계에 의해 구성된 과목이다. 그러나 수학과 수학Ⅱ는 위계에 의한 구분이 아니다. 수학과 수학Ⅱ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수학’의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의 3개 핵심개념 영역으로 구성되는 반면, ‘수학Ⅱ’의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의 3개 핵심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학’과 ‘수학Ⅱ’는 위계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영역에 의한 구분이다.

고2 때 주로 ‘I’으로 표시된 과목을 선택해서 배워야 고3 때 ‘II’로 표시된 위계가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1에서 선택할 때, 고2, 고3 때 공부할 과목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

서울대학교 교과이수기준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교과이수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 과 선택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I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기준 I 과 기준 II 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교과이수 기준 I]

교과영역	모집단위	교과이수기준 I
탐구	전 모집단위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
생활·교양	공통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이수

※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한국사는 사회 교과로 인정하지 않음

※ 진로희망에 따라 과학II 과목 이수를 권장함

[교과이수 기준 II]

교과(군)	교과이수기준 II	
수학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
과학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2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사회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 전문교과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함

※ <사회>는 국제계열 교과 포함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수업’에서 이수한 과목도 포함

3) 서울대 정시모집 교과 평가

서울대는 정시모집에 2023학년도부터 교과평가를 실시한다.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① 교과 이수 현황, ② 교과 학업성적,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하여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이수 및 학업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대교협 양식 등)이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과목 이수 내용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진로·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p>[예시] 공과대학 평가: 수학, 과학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p> <p>[예시] 경제학부 평가: 수학, 사회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p>	교과(목) 이수 현황

② 교과 성취도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교과 영역 및 모집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함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고려함 	교과(목) 학업성적

③ 교과 학업 수행 내용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교과(목)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업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다. 진로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

진로선택과목의 평가 방법은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의 평가방법과 다르다.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데, 진로선택과목은 A,B,C 3단계 성취도가 제공된다.

[학교생활기록부(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학교생활기록부(진로선택과목)]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문학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라. 공동(협력)교육과정의 대입평가활용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선택 인원 부족으로 과목 개설을 하지 못해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된 표이다.

구분	이수유형	평가요소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이수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된 동기, 자기주도적인 탐색과정과 학습태도 평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 해소 이수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찾아 들었다는 점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교과목 이수 및 성취평가 	전공적합성
유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높은 전문/심화된 과목 이수 지적 호기심 확장에 따라 전문, 심화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업역량

※ 출처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학 입시의 변화 (임진택 경희대입학사정관팀장)



마. 계열별 교육과정 선택 예시

교과군		경상계열(사회 중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영어II	영미문학 읽기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전문)
탐구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 (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물리학I	과학사	생명과학I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생활교양		한문I,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중국어, 한문I, 진로와 직업	중국어 회화(전문) 중국어II
교과군		예술계열(예술 중심)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진로 영어
탐구	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화	
	과학		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지구과학II,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창작, 드로잉, 매체 미술(전문)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교양		일본어, 한문I, 진로와 직업, 철학		기술·가정, 정보, 진로와 직업, 환경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학과를 탐색한 후 일반선택 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다. 계열별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예시를 참고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2. 대입 성적자료의 이해

가. 학생부교과 성적

학생부교과 성적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 및 수능 성적과 더불어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3가지 평가요소 중 하나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석차등급의 형태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석차등급 뿐 아니라 학생부에 표기된 과목별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등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고교 3년간 각 학기의 과목별 성적의 추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교육과정 상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늘어나면서 모집단위에 따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논술전형이나 실기전형, 정시전형에서도 낮은 비중이긴 하나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 성적 즉, 내신은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1) 석차등급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요소는 내신 석차등급이다. 내신 석차등급은 과목별, 학기별로 산출하는데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를 반영한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9등급으로 환산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만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의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는데 중간석차 백분율이 해당 구간의 비율을 넘길 경우, 동점자 성적 모두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학생부 석차등급의 특징이다. 반면 학력평가나 수능의 경우 해당 구간의 비율을 넘더라도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다르다.

교과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 교과성적 반영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과성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비교과, 면접 등의 기타 요소를 함께 반영한다.

2)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원점수는 한 학기에 실시한 모든 성적의 합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점수다. 보통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석차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원점수도 높다고 기대되지만 각 학교별, 교과별로 시험의 난도에 따라 원점수와 석차등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인 원점수 분포에 따라 석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원점수 분포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목 평균이나 과목 표준편차 등을 병기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부에 나타난 여러 과목과 학기별 성적을 분석해 보면 해당 학교의 학생집단이 우수한 집단인지, 특정 과목의 출제 난도가 높은지, 낮은지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 성적에 표기된 원점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자료들은 학생의 상대적인 학업역량과 그 학생이 속한 학교의 집단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이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하지만 과목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성취율(원점수)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성취도	A	B	C	D	E

단,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원점수나 기타 다른 성적은 표기하지 않는다.

성취율(원점수)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성취도	A	B	C

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 2학년 시기에 연간 최대 4회 그리고 3학년은 3월, 4월, 7월, 10월에 치르는 시험으로 교육청 주관 하에 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하며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다. 많은 학생들이 교과 내신성적만 신경 쓰고 모의고사를 소홀히 여기는데, 수능 연습을 한 학년에 최대 4회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의 기회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3학년은 6월과 9월에 별도로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른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약 3주 후에 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마친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과목별로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석차등급 등이 표시되어 제공된다. 다만, 모의평가의 경우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으며, 백분위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모의고사 성적표 예시〉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배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 석차	학교 석차	전국 백분위	등급
국어		100	87	0~200	120	4/33	29/410	83.83	3
수학		100	77	0~200	137	3/33	14/410	94.39	2
영어		100	92	원점수에 의한 등급 (1)					
한국사		50	45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탐구	화학	50	42	0~100	58	1/33	5/130	96.55	1
	생명과학	50	26	0~100	58	3/33	9/124	79.88	3

1) 원점수

원점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 중 수험생이 정답을 한 문항의 배점을 합한 점수이며, 국어, 수학, 영어영역은 100점 만점이고, 탐구영역은 과목 당 50점이 만점이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과 2개의 탐구영역을 선택한 학생의 원점수 만점은 400점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에서는 수험생에게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연습인 만큼 원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영역, 과목별로 난도와 응시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원점수만으로 개인의 성적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원점수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2) 표준점수

영역마다 과목마다 시험의 난도가 다르고 응시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획득한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나도록 변환한 것을 표준점수라 한다. 즉 과목별로 학생의 원점수가 성적분포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과목별로 맞추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력평가와 수능 시험에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	사탐, 과탐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20 + 100$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10 + 50$

수능시험에서 국어 및 수학 영역 선택과목 조정원점수 산출

선택과목점수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text{공통과목 표준편차} + \text{공통과목 평균}$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에 다른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여 조정원점수를 산출한 다음 공통과목점수와 선택과목 조정원점수를 표준화하여 배점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다.

표준점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택과목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같은 표준점수라 하더라도 해당 과목 응시자 전체의 득점분포 상황에 따라 성취수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학생이 선택한 영역 집단 내에서의 학생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표준점수에 의해 환산한 백분위 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학력평가와 수능에서의 표준점수의 범위는 0점~200점(탐구는 0점~100점) 구간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만점이 200점(100점)이라는 뜻은 아니다.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원점수의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난도가 높은 시험이 평균점수가 낮아지므로 최고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표준점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값이 나오는 경우 절삭하여 0점 미만은 0점으로, 200점 초과는 200점을 부여한다.



3) 백분위

백분위는 상대적인 학생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로 해당 수험생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는 원점수가 아닌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과목 또는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자신보다 더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 + (\text{동점자 수}) \div 2}{(\text{해당 영역 또는 과목의 수험생 수})} \times 100$$

백분위는 원칙적으로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지만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선형 변환이므로, 원점수가 제공되는 학력평가의 경우 위의 식에서 표준점수 대신 원점수를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4) 등급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고 수험생이 속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등급별 비율은 교과 성적등급 산출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교과 성적과는 달리 등급 구분 점수에 놓인 동점자들에게는 해당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주의 : 백분위는 ‘성적표에 기록될 때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따라서 성적표의 백분위가 동일하더라도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고, 실제 등급(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반올림 없이 산출) 역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영역에서 ‘가’ 학생의 표준점수는 133점으로 반올림하지 않은 백분위가 95.80이고, ‘나’ 학생의 표준점수는 134점으로 반올림하지 않은 백분위가 96.30이라면, 1등급의 등급 구분점수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134점이 되고 성적표에는 두 학생 모두 백분위가 96으로 반올림되어 표시되지만, 실제 등급은 ‘가’ 학생에게 2등급이, ‘나’ 학생에게 1등급이 부여된다.

다. 전형에 따른 성적자료의 활용

1) 수시전형

“합격당락은 내신성적이 좌우하지만, 전략을 잘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

학생부교과 성적은 학생부중심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모두 반영되고 지원하려는 대학의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과전형에서는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교과성적 외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전형이지 교과성적을 판단하지 않는 전형이 아니다. 논술전형에서도 많은 대학이 총점의 70~60%를 논술성적으로, 30~40%를 교과성적 등급을 환산한 점수로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교과성적은 수시전형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수시지원 전략을 잘 때는 학생부교과 성적 뿐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 내용, 전국연합학력평가(또는 모의평가) 성적까지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학력평가 평균 성적으로 수능 예상등급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시 지원선을 예측하여 수시지원 여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꼭 성실하게 모의평가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수능최저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무조건 불합격하지

만, 반대로 수능최저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실질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모의평가에서 받은 성적의 범위를 바탕으로 수시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정시전형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절대적으로 합/불을 결정”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원점수보다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중요한데, 이 둘은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 및 기준에 의거해 최종 전형 점수를 산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과목별 반영비율과 가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전 과목을 끝까지 잘 관리해야 대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수능의 연습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부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로 1~2학년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 수, 영 과목에 집중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준비를 하고 2학년 후반부터는 선택한 탐구과목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것이 좋다.

재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연간 최대 4회밖에 응시하지 않는데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시전형 뿐만 아니라 수시 원서 6장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능 모의평가 성적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학력평가 성적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꾸준하게 성적을 상승시켜야 추후 졸업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고 평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2.3. 교과 및 비교과활동 준비

수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년 동안 교과 및 비교과활동 준비에 힘써야 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 학교생활기록부 이해하기

1) 교과활동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충실하게 한 학생을 가려내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만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적호기심과 학업역량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도전, 열정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나아가 창의적인 부분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성적으로서의 교과와 활동으로서의 비교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을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항목이다. 교과내용과 연관하여 학생의 성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종합적인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교과활동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학생 스스로 호기심을 해결하는 탐구방법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수업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록도 학생의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기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동기를 가지고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과정의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비교과활동의 준비방법

일반적으로 교과활동 즉 수업시간의 활동을 제외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비교과활동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학적사항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 같은 처벌사항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면 합격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출결상황은 학생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 역시 종합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상경력도 학생의 관심사, 학업역량, 도전정신 등의 다양한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 분야의 상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입상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023학년도에는 학기당 1개의 수상경력이 대학에 제공되지만, 2024학년도부터 수상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활동에 해당하는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모두 별개의 활동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연계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과 수업 외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과정-결과를 활동 전·후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학년도부터 독서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3) 학생부 기록의 간소화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됨으로써 중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학생부에 간략하게 기록된 활동 중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으로써, 간소화된 학생부 기록을 보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항목		글자 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500
	동아리	500
	봉사	미기재
	진로	7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
계		2,200

4) 학생부 항목별 기록 내용의 변화

순	항목		내용
1	인적·학적사항		■ 학생 정보
2			■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3	출결상황		■ 질병·미인정·기타
4	수상경력		■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 학기당 1개 제공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사항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 개인 봉사활동실적(2024학년도 대입 미제공)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 학년당 1개 기재.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등 30자 이내로 기재
			(소논문) ■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 금지
			(청소년 단체)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는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순	항목	내용
		(학교스포츠클럽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 누가기록 기재·관리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9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 특기사항 입력
10	독서활동상황 (중·고)	■ 제목과 저지만 입력,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분량 축소 : 500자 ■ 누가기록 기재·관리방법 시도 위임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기록 사항이 크게 변경된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얼마나 대입에 반영되는지 잘 알아야 어떤 비교과 활동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나. 자기소개서 준비하기(2024학년도 폐지)

자기소개서는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용되는 평가서류이다. 특히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 선생님이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작성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됨에 따라 학생부의 내용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에게 자신의 합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알맞은 소재를 잘 선정해야 하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소재로 골라야만 충분히 그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고 추후 면접에서 계속된 질문이 이어졌을 때도 잘 답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학생부 기록으로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장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작성하기보다는 고등학교 3년간의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2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기 중간에 조금씩 쓰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격적인 수시 준비가 시작되는 3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소재 확보에 집중하고, 실제 작성은 3학년 여름방학에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소개서는 2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성해야 한다. 1번 문항은 학업노력과 전공 관련 준비, 2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 인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한다. 한편, 자소서에 기록하면 불이익을 받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1) 2023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경험, 교내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공동체(동아리, 학급, 학교 등)에 기여한 교내활동(수업활동 포함)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2) 대학별 자율문항의 예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2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율문항은 2022학년도 기준임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외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유의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꼭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 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 검정

2)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 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 (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 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 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 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
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
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
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Ⅲ

2023학년도 수시전형 기본사항

2023학년도 수시전형 기본사항

3.1.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대학별 모집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 소재의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적은데 비해,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흔히 ‘내신성적’으로 불리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 합불 결과를 참고한 합격 예측의 정확성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교과성적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전형으로,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특성이 있어 경쟁률이 타 수시전형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고,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중복합격하는 경우가 많아 총원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기도 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내신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에서 높은 수준의 내신성적이 필요하지만, 대학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하 ‘수능최저’)이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교과 내신 성적 산출 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목 중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성적만이 유일한 평가지표가 아닌 대학도 있고, 전 과목의 성적이 아닌 일부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다시 말해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무에 따라 또는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등급, 원점수 또는 Z점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등급은 가장 많은 대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9등급 상대평가로 반영된다. 또한 등급과 원점수를 혼용하여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점수 90점, 80점 등을 기준으로 1등급 또는 2등급 등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Z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교과 내신 성적의 경쟁이 치열한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대학에 따라 등급과 Z점수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즉, 반영과목이 전 과목인지, 아니면 일부 과목인지, 또는 각 과목의 이수단위 반영 여부에 따라 내신 성적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또한 학년별 반영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학년별 가중치 없음 (1:1:1)		학년별 가중치 있음 (2:4:4)	
1학년 시험 4번	시험당 8.3%, 총 33.3%	1학년 시험 4번	시험당 5%, 총 20%
2학년 시험 4번	시험당 8.3%, 총 33.3%	2학년 시험 4번	시험당 10%, 총 40%
3학년 시험 2번	시험당 16.7%, 총 33.3%	3학년 시험 2번	시험당 20%, 총 40%

(학년별 성적반영비율에 따른 시험당 비중의 차이 예)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학생이라면 3학년 성적반영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반대로 성적이 하락한 경우에는 전 학년 성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학년별 가중치를 주지 않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국립대학 그리고 간호학과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수능최저가 다르게 적용되니, 지원 시 수능최저 충족 여부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시전형 전반에 걸쳐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잘 활용할 경우 경쟁률을 대폭 줄여주는, 다시 말해 합격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합격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시전형에 지원한다고 해서 수능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능최저가 합격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시에 지원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소홀히해 수능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능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 ‘실질 경쟁률’은 크게 낮아진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인다. 즉,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 대학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고, 수시 논술전형에서도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가. 2023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 수능최저 있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가톨릭대	지역균형	270명	교과100	(인문) 2개 합 7 (탐구1) (자연) 2개 합 7 (탐구1) (약학과) 3개 합 5 (과탐1) (의예과) 4개 합 5 (과탐2) 및 한국사 4 (간호학과) 3개 합 7 ※ 약학, 의예,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은 사회탐구 응시 가능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462명	학생부100	(인문/자연) 2개 합 6 ※ 미적/기하 포함 시 1등급 상향
건국대	KU지역균형	340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5 (수의) 3개 합 5 ※ 한국사 5 이내
고려대	학교추천	871명	학생부(교과) 80+서류20	3개 합 6(인문)/7(자연) (의예과) 4개 합 5 ※ 한국사 3(인문)/4(자연) ※ 탐구 2과목 반영 동일과목 1,2미인정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409명	학생부100	2개 합 5(인문)/6(자연) (탐구1) ※ 자연 과탐 응시
상명대	고교추천전형	341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7 (탐구1)
서강대	고교장추천	172명	교과90+출결5+ 봉사5	3개 합 6 (탐구1) ※ 지원 계열에 따른 응시 영역 내 선택과목 구분X ※ 한국사 4 이내
서경대	교과성적우수자	225명	교과100	2개 합 6 (탐구1) ※ 한국사로 탐구 대체 가능
서울과기대	고교추천	418명	교과100	2개 합 7 (탐구1)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196명	교과100	(인문/자연) 3개 합 7 (탐구1)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365명	학생부100	(인문) 3개 합 6 (탐구1) (글로벌) 3개 합 5 (탐구1) (자연) 3개 합 6(탐구 각영역) (소프트웨어)3개 합5(탐구 각각) ※ 인문 제2/한문 탐구 대체 가능
세종대	지역균형	310명	학생부100	(인문) 2개 합 6 (탐구1) (자연) 2개 합 7 (탐구1)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447명	교과100	(인문) 2개 합 4 (탐구1) (자연) 2개 합 5 (탐구1) (자유전공) 2개 합 5 (탐구1)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인천대	교과성적우수	455명	교과100	(인문) 2개 합 7 (자연) 수,과 포함 2개 합 7 (사범대) 2개 합 6 (국제통상) 2개 합 5 *탐구 1과목 반영
인하대	지역균형	396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5 (탐구1) (의예) 3개 각 1등급 (탐구2)
중앙대	지역균형	419명	교과90+출결10	(서울, 인문) 3개 합 7 (탐구1) (서울, 자연) 3개 합 7 (탐구1) (약대) 4개 합 5 (탐구1) * 한국사 4등급 탐구 동일과목 1,2 선택불가
한성대	교과(I)	291명	학생부100	2개 합 7 (주간)/ 8(야간) * 탐구 1과목 반영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200명	교과100	(서울, 인문) 2개 합 4 (탐구1) * 한국사 4등급
한양대 (에리카)	지역균형	313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6 (탐구1) (약학과) 3개 합 5 (탐구1)
홍익대 (서울캠)	학교장추천	287명	교과100	(인문) 3개 합 7, 한국사 4 (탐구1) (자연) 3개 합8, 한국사 4(탐구1)
덕성여대	학생부100%	155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7 (탐구1) (약학과) 3개 합 6 (탐구2) * (약학과) 반영영역 각각 3등급 이내, 미적 /기하 응시
동덕여대	학생부교과	407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7 (탐구2) (약학과)영어제외 2개합4(탐구2) * 영어 포함 시 2개 합 6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171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7 (탐구1)
성신여대	지역균형	251명	교과90+출결10	2개 합 6(인문)/7(자연) (탐구1)
숙명여대	지역균형	251명	교과100	(인문/자연) 2개 합 5 (탐구1) (약학) 수 포함 3개 합5 (탐구1)

- * (탐구1)은 탐구영역 2과목 중 상위 1과목 등급만 반영한다는 의미
- * (탐구2)와 '탐구 2과목 반영'은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을 반영한다는 의미
- * 인문계열은 대부분 수학 선택과목과 탐구 선택과목에 구분을 두지 않지만, 수학 선택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한 것으로 전제
- * 자연계열은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기하, 과학 탐구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들은 별도 표기



나. 2023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 수능최저 없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건국대	KU지역균형	341명	학생부70+서류30
광운대	지역균형	194명	교과100
덕성여대	고교추천	120명	교과100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403명	교과70+서류30
명지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160명	교과1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	145명	1단계(5배수) : 교과100 2단계 : 1단계70+면접 30
연세대	추천형	523명	1단계(5배수) : 교과100 2단계 : 1단계60 + 면접40
이화여대	고교추천	400명	교과80+면접20
한성대	학생부교과(II)	216명	교과100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331명	교과100

다. 2023학년도 지방거점국립대학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보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은 편이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과별로 다른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시 수능최저 충족 여부를 따져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명	2023학년도 모집인원				2022학년도 모집인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강원대	2,309	936	0	139	2,263	989	0	289
경북대	1,281	1,547	472	164	1,350	1,350	472	147
경상대	1,468	1,266	0	53	1,240	1,189	0	46
부산대	1,207	1,220	390	229	1,394	1,058	439	240
전남대	2,470	1,074	0	159	1,973	879	0	158
전북대	1,905	860	0	143	1,834	845	0	107
제주대	922	646	0	76	845	610	0	112
충남대	1,747	851	0	43	1,659	790	0	174
충북대	1,215	854	0	7	1,206	843	0	45
합계	14,524	9,254	862	1,013	13,743	8,553	911	1,318

3.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81,703명으로 약 2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합산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보다 많으나, 서울지역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더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한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이외에도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털 등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모두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란 교육부에서 지정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6개 대학을 하나로 일컫는 말로,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사범계열 등 다양한 계열의 학과와 단과대학을 가진 일반 대학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 즉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계열의 학과 및 단과대학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을 말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6개 대학이 있는데, 포스텍은 일반 대학이라 수시모집 6회 제한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5개 대학은 수시 원서접수 시 6회 제한에 적용되지 않아서 6개의 대학을 지원하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더라도 정시모집 지원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가.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

대학명	수시					수시 인원	정시 인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기타		
가천대	901	847	914	424	75	3,161	1,403
가톨릭대	270	863	179	0	32	1,344	650
건국대	341	1,177	434	28	60	2,040	1,361
경희대	555	1,543	487	314	100	3,004	2,409
고려대	871	1,548	0	70	75	2,564	1,709
광운대	194	722	187	15	33	1,151	768
국민대	409	1,484	0	172	56	2,121	1,218
단국대	951	1,413	315	460	92	3,231	1,877
덕성여대	299	306	105	56	18	784	416
동국대	407	972	312	135	54	1,880	1,257
동덕여대	464	281	0	315	30	1,090	685
상명대	823	694	0	352	52	1,921	1,111
서강대	172	651	169	0	31	1,023	695



대학명	수시					수시 인원	정시 인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기타		
서울과기대	418	799	193	68	0	1,478	910
서울교대	50	175	0	0	10	235	161
서울대	0	2,059	0	0	0	2,059	1,413
서울시립대	225	630	77	7	0	939	904
서울여대	186	638	120	73	31	1,048	699
성균관대	370	1,300	360	107	0	2,203	1,475
성신여대	286	835	175	259	41	1,596	819
세종대	397	697	310	76	46	1,526	1,242
숙명여대	251	592	227	126	161	1,357	1,099
송실대	447	967	269	51	53	1,787	1,299
연세대	523	1,047	346	165	68	2,149	1,639
이화여대	400	1,084	310	295	61	2,150	1,229
인하대	401	1,691	469	88	69	2,718	1,272
중앙대	505	1,392	487	404	91	2,879	2,178
한국외대	373	1,173	477	0	67	2,090	1,553
한양대	331	1,115	246	131	56	1,879	1,415
홍익대	694	1,482	526	76	73	2,851	1,285
합계	12,514	30,177	7,694	4,267	1,535	56,258	36,151

나. 2023학년도 서울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 수능최저 있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고려대	학업우수형	882	1단계(6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4개 합 7 (자연) 4개 합 8 (의예) 4개 합 5 *탐구 2과목 반영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563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3개 합 7 *탐구 2과목 평균 반영
연세대	활동우수형	540	1단계:서류100 (인문2.5배수, 자연4배수) 2단계:1단계60+면접40	(인문) 국, 수 포함 2개 합 4 (자연) 수학 포함 2개 합 5 (의예, 치의예, 약학) 국어, 수학, 과탐 중 2개 1등급 *영어 3, 한국사 4 이내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이화여대	미래인재	898	서류100	(인문) 3개 합 6 (자연) 2개 합 5 (의예/약학) 4개 합 5 (미래산업약학) 4개 합 5 (스크랜튼) 3개 합 5 *탐구 1과목 반영
홍익대(서울)	학교생활우수자	506	서류100	(인문) 3개 합 7 (자연) 3개 합 8 *탐구 1과목 반영 *한국사 4 이내

다. 2023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 수능최저 없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건국대	KU자기추천	795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583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고려대	계열적합형	463	1단계(5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60+면접40
동국대	Do Dream	512	1단계(3.5~4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불교추천인재	108	1단계(2~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Do Dream(소프트웨어)	64	1단계(3.5~4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서강대	학생부종합	548	서류100
서울대	일반	1,294	1단계(2배수) : 서류100 2단계 : 서류50+면접50 *미술, 체육교육 수능최저 있음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439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60+면접40
성균관대	학생부종합(계열모집)	417	서류100
	학생부종합(학과모집)	573	서류100 * 의예, 사범, 스포츠과학 면접(20) 실시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숙명여대	숙명인재I(서류형)	149	서류100
	숙명인재III(면접형)	270	1단계(4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60+면접40
중앙대	다빈치형	396	1단계 : 서류100 2단계 : 1단계70+면접30
	탐구형	356	서류100
한국외대 (서울)	학생부종합(면접형)	220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1단계60+면접40
	학생부종합(서류형)	217	서류100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821	학생부종합평가100

라. 2023학년도 교육대학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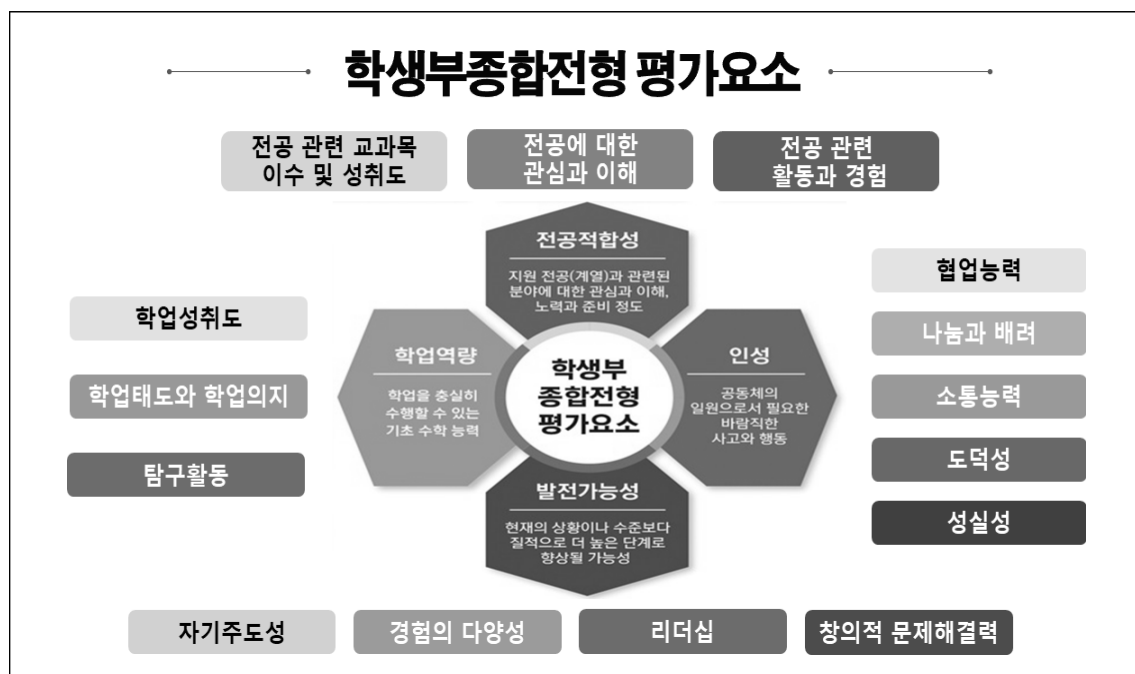
지역별 교육대학에서는 수시모집에서 모집인원 2,019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교과	종합	교과	종합
경인교대	0	340	0	388
공주교대	0	205	0	234
광주교대	0	219	0	235
대구교대	0	214	0	252
부산교대	0	201	0	232
서울교대	50	145	50	175
이화여대	9	14	9	14
전주교대	0	104	0	127
진주교대	0	179	0	206
청주교대	0	162	0	187
춘천교대	0	172	0	196
한국교원대	2	64	14	377
합계	61	2,019	73	2,623

마.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향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교과 성적 이외에도 지원자의 잠재능력, 소질, 전공적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 판단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즉, 학생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미래를 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간소화 정책과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등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중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에도 충실해야 한다.

한편, 2018년 건국대 등 6개 대학과 교사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대입 전형 표준화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상당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60여개 대학의 평가 기준을 정리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대학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 출처 : 6개 대학 공동연구 <대입 전형 표준화방안 연구>, 2018. 3.

바. 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지원 모집 단위 관련 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관련 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있는가? ▶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이 있는가? ▶ 지원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적절한 수준인가?
인성	협업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협업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나눔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본보기로 언급되거나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 활동, 단체 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수업이나 학교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험이 나타났는가? ▶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경험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 학교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주도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탐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3.3. 면접의 이해

면접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특기자전형에서 활용되는 평가요소로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면접은 다른 전형요소와 함께 단계 없이 일괄합산하여 평가되거나, 2단계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실시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면접을 활용하는 학교가 적은 편으로, 서울 내 대학 중에서는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과+면접 일괄 합산 실시 대학

대학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이화여대	고교추천	400	교과80+면접20	X

2) 1단계 학생부 교과, 2단계 면접 실시 대학

전형방법		대학명
1단계	2단계	
교과 100% (일정배수)	1단계 40% + 면접 60%	성결대 SKU창의적인재
교과 100% (일정배수)	1단계 50% + 면접 50%	가천대 지역균형
교과 100% (일정배수)	1단계 60% + 면접 40%	수원대 면접위주교과전형, 안양대 아리학생부면접, 연세대 학생부교과, 협성대 미래역량우수자전형
교과 100% (일정배수)	1단계 70% + 면접 30%	명지대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을지대 교과면접우수

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실시 대학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2단계 면접에서는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전공 소양, 인성 등을 주로 평가하는 일반면접이나, 제시문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판단하는 심층면접이 이루어진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은 2단계에서 50%를 반영하는 서울대 일반전형(1,294명)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고려대 학업우수형(이상 2단계에서 30% 반영), 연세대 활동우수형(2단계에서 40% 반영) 등은 서류와 면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반면, 건

국대 KU자기추천전형(2단계에서 30% 반영), 숙명여대 숙명인재II 면접형(2단계에서 40% 반영) 등은 최저학력기준 없이 서류와 면접만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형방법 및 면접비율	수능최저 적용	수능최저 미적용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고려대 학업우수형	건국대 KU자기추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동국대 Do Dream/Do Dream(소프트웨어)/불교추천인재, 한국외대(서울) 학생부종합(면접형), 중앙대 다빈치형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계열적합형,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숙명여대 숙명인재III(면접형)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50	서울대 일반전형 (미술, 체육교육)	서울대 일반전형(그 외)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40+면접60	홍익대 미술우수자	

다. 면접 유형과 예시

면접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제출한 서류내용을 체크하고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며, 심층면접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묻는 면접이다.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마다 면접유형은 다르므로 입학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발행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전년도 면접 문항을 참고해 면접을 준비하자.

라. 면접 대비

1)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을 파악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서를 참고하여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이 있는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2) 서류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모의 면접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질문에 답할 때에는 짧고 간결하게 중심 문장을 말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말로 부연 설명하는 방법을 익혀 실전 대비를 하도록 한다.

3) 모의 면접 시 꼭 영상으로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찍어 본다. 말할 때의 표정, 말투, 제스처 등에 대해서도 체크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4. 지역인재전형의 이해

지역인재전형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20,783명을 모집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21,235명 모집으로 452명이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대학 수	모집인원(명)	비율(%)	대학 수	모집인원(명)	비율(%)	인원(명)
92개교	20,783	6.0	93개교	21,235	6.1	▲452

지역인재전형이란 지방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고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 한의대, 간호대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 치대, 간호대, 한의대 등에 대거 합격한 뒤 졸업 후 지역에 남지 않고 출신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이 전체 학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에서 선발하며,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최저등급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인원이 많은 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지역인재전형은 대학별로 지원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 대학은 강원지역 소재 고등학교만,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대구, 경북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신 고등학교가 대학과 같은 도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지원 전 모집요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는 충남과 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전이나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남대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이 모두 지원 가능하나, 전북대는 전북지역 고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 전국 대학 2021~2023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비교

구 분	대학 수	모집인원(명)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3학년도	93개교	21,235	6.1
2022학년도	92개교	20,783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	4.8

나. 9개 지방 거점국립대 2021~2023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비교

대학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 증감 인원
강원대(춘천)	513	527	545	-14
경북대	444	532	313	-88
경상대	358	307	299	51
부산대	463	442	263	21
전남대	682	735	880	-53
전북대	430	384	233	46
제주대	358	319	275	39
충남대	484	494	493	-10
충북대	275	286	263	-11
합계	4,007	4,026	3564	-19

3.5. 논술전형의 이해

2023학년도의 수시 논술 위주 모집인원은 11,016명으로 2022학년도에 비해 53명 감소한다.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대학 수	모집인원(명)	대학 수	모집인원(명)	인원(명)
36개교	11,016	36개교	11,069	-53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2022학년도와 같이 36개교로, 서울 지역에서는 22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인천, 경기 지역 대학에서는 11개 대학에서, 기타 지역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의예)를 포함해서 6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가. 2023학년도 지역별 논술전형 실시 대학

지역	대학교
서울(22)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인천, 경기(11)	인하대,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수원), 단국대(죽전), 수원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기타지역(6)	고려대(세종), 연세대(원주), 한국기술교육대,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의예)

나. 논술전형 모집인원 변화

논술전형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형이다. 상위 주요 15개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이 논술전형을 실시한다. 특히 가천대는 논술 선발 대학 중 가장 많은 914명을 선발한다. 수원대(528명), 고려대(세종)(410명), 건국대(서울)(434명), 경희대(487명), 인하대(469명), 중앙대(487명), 한국외대(477명), 홍익대(서울)(526명) 또한 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논술로 선발한다. 지역 거점 대학인 경북대는 472명, 부산대는 390명을 선발한다.

1) 전년도 대비 202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 증감 (정원 내 기준)

대학명	모집인원		증감
	2023	2022	인원(명)
가천대	914	851	63
가톨릭대	179	170	9
건국대	434	435	-1
경기대	169	169	0

대학명	모집인원		증감
	2023	2022	인원(명)
경북대	472	472	0
경희대	487	493	-6
고려대(세종)	410	380	30
광운대	187	187	0
단국대	315	330	-15
덕성여대	105	105	0
동국대	312	340	-28
부산대	390	439	-49
서강대	169	169	0
서울과학기술대	193	227	-34
서울시립대	77	77	0
서울여대	120	120	0
성균관대	360	357	3
성신여대	175	168	7
세종대	310	330	-20
수원대	528	480	48
숙명여대	227	228	-1
송실대	269	281	-12
아주대	169	187	-18
연세대(서울)	346	346	0
연세대(미래)	259	259	0
울산대	11	12	-1
이화여대	310	330	-20
인하대	469	509	-40
중앙대	487	686	-199
한국기술교육대	220	210	10
한국산업기술대	300	265	35
한국외대	477	477	0
한국항공대	206	169	37
한양대(서울)	246	241	5
한양대(ERICA)	188	191	-3
홍익대	526	379	147
합계	11,016	11,069	-53

※ 각 대학의 모집인원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2) 2023학년도 대학별 논술전형 모집인원 변화

2022학년도 대입 대비 모집인원이 증가한 곳은 11 대학이고, 논술 선발인원에 변화가 없는 10개 대학이며, 지난해보다 선발 규모를 축소 한 대학은 15개 대학이다.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147명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중앙대로 199명이 감소하였다.

증가 대학(증가 인원)	유지 대학	감소 대학(감소 인원)
가천대(63), 가톨릭대(9), 고려대(세종)(30), 성균관대(3), 성신여대(7), 수원대(48), 한국기술교육대(10), 한국산업기술대(35), 한국항공대(37), 한양대(5), 홍익대(147)	경기대, 경북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한국외대	건국대(1), 경희대(6), 단국대(15), 동국대(28), 부산대(49), 서울과기대(34), 세종대(20), 숙명여대(1), 송실대(12), 아주대(18), 울산대(1), 이화여대(20), 인하대(40), 중앙대(199), 한양대(에리카)(3)

다. 대학별 논술전형 방법

논술전형은 대부분 논술과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2019학년도부터 연세대는 논술 100%로 선발 방법을 변경하였다. 2020학년도에는 논술에서는 건국대가 논술 100%로 선발방식을 변경하면서 수능최저기준을 도입하였다. 학교마다 교과반영 방법이 다양하지만, 논술전형의 합격 당락은 대부분 논술 실력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부 성적의 실제 변별력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학이 설정한 논술전형에 반영하는 학생부의 교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고 교과 점수에 기본점수를 주는 대학도 많기 때문이다. 즉, 논술전형은 논술 시험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내신 5등급 이하부터는 논술전형에 반영되는 교과등급 점수가 많이 깎이는 편이므로 논술전형을 준비하려는 경우 최소 내신 5등급 이내의 성적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논술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타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 따라서 수능최저 등급이 있는 논술전형에 지원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 2023학년도 논술전형 실시 대학 및 선발 방법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선발 방법	수능최저
가천대	논술	914	논술60+학생부40	○
가톨릭대	논술	179	논술70+교과30	X(의예, 간호○)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434	논술100	○
경기대(수원)	논술고사우수자	169	논술60+교과40	X
경북대	논술(AAT)	472	논술70+교과30	○
경희대	논술우수자	487	논술70+교과21+비9	○
고려대(세종)	논술	410	논술70+교과30	○
광운대	논술우수자	187	논술70+교과30	X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선발 방법	수능최저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315	논술70+교과30	X
덕성여대	논술	105	논술100	O
동국대	논술우수자	312	논술70+교과20+출석10	O
부산대	논술	390	논술70+교과30	O
서강대	논술	169	논술80+교과120+비10	O
서울과기대	논술위주	193	논술70+교과30	X
서울시립대	논술	77	논술70+교과30	X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20	논술80+교과20	O
성균관대	논술우수	360	논술100	O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175	논술70+교과27+출석3	O
세종대	논술우수자	310	논술70+교과30	O
수원대	논술	528	논술60+교과40	X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227	논술90+교과10	O
송실대	논술우수자	269	논술60+교과40	O
아주대	논술우수자	169	논술80+교과20	X(의학○)
연세대(서울)	논술	346	논술100	X
연세대(미래)	일반논술	259	논술100	O
울산대	논술(의예과)	11	논술60+교과40	O
이화여대	논술	310	논술70+교과30	O
인하대	논술우수자	469	논술70+교과30	X(의예○)
중앙대	논술	487	논술70+교과20+출석10	O
한국기술교대	논술일반전형	220	논술70+교과30	X
한국산업기술대	일반(논술)	300	논술80+교과20	X
한국외대	논술	477	논술70+교과30	O(글로벌X)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206	논술100	O
한양대(서울)	논술	246	논술90+비교과10	X
한양대(에리카)	논술	188	논술70+교과30	X
홍익대(서울)	논술	526	논술90+교과10	O

2) 2023학년도 논술전형의 논술성적 반영비율 변화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논술전형에서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인 학교가 많다. 많은 대학이 2022학년도 대비 논술성적의 반영비율을 10~20% 향상하였다.



반영비율	2023학년도	2022학년도
100%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미래), 한국항공대	건국대(서울), 연세대(서울), 한국항공대
90%	숙명여대, 한양대, 홍익대	홍익대(서울)
80%	서강대, 서울여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서울)
70%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양대(에리카)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양대(에리카)
60%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송실대, 울산대(의예)	경기대(수원), 성균관대, 송실대, 울산대, 중앙대

라.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논술전형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방법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학생이 많아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논술 전형은 결시율이 높고, 수능 최저 충족율이 낮은 전형이라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한 수시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2023학년도 논술전형 수능최저 없는 대학

대학명	모집인원	비고
가톨릭대	179	의예/간호 제외
경기대	169	
광운대	187	
단국대(죽전)	315	
서울과기대	193	
서울시립대	77	
수원대	528	
아주대	169	의예 제외
연세대(서울)	346	
인하대	469	의예 제외
한국기술교대	220	
한국산업기술대	300	

대학명	모집인원	비고
한국외대	477	글로벌캠퍼스만 수능최저 없음
한국항공대	206	
한양대(서울)	246	
한양대(에리카)	188	

2) 202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수능 최저 등급

대학명	수능 최저 등급	
	인문	자연
가천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1개 3등급 이내	
가톨릭대	<p>의예과 :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p> <p>간호학과 :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p> <p>약학 :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p>	
건국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	<p>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p>(수의예)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등급 합 4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경희대	<p>국어,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p>(한의예) 국어,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p>(체육)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p>	<p>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p>(의예, 한의예, 치의예)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p>
덕성여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동국대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단, 등급 합 산정 시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대학명	수능 최저 등급	
	인문	자연
		(약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단, 등급 합 산정 시 수학 또는 과학 탐구 1개 이상 포함)
	(경찰행정)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서강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서울여대	국어, 영어, 수학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성균관대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국어, 수학, 사회탐구/과학탐구(1과목) 중 3개 합 6 이내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국어, 수학, 사회탐구/과학탐구(1과목) 중 3개 등급 합 5 이내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과학, 전자전기공학, 공학, 건축학, 건설환경공학) 국어, 수학(미/기), 영, 과1, 과2 중 3개 합 6 (약학, 반도체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국어, 수학(미/기), 영, 과1, 과2 중 3개 합 6 (의예) 국, 수(미/기), 영, 과 4개 합 5
성신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합 6 이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합 7 이내
세종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숙명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송실대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아주대	(의학)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등급 합 6 이내	
울산대	(의예)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 버림) 4개 영역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이화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스크랜튼)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4개 영역 중 수 포함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스크랜튼)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인하대	(의예) 국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대학명	수능 최저 등급	
	인문	자연
중앙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서울-약학부, 의학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서울-약학부, 의학부 제외)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안성-전체)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과목별I+II 중복 선택 불가(ex. 화학+화학II 불가)
한국외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LD/LT 학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홍익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IV

2023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

2023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

4.1. 정시모집의 이해

가. 정시모집 일정 및 특징

1) 정시모집 일정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3. 1. 5.(목) ~ 12.(목) (8일)
		나군	2023. 1. 13.(금) ~ 20.(금) (8일)
		다군	2023. 1. 25.(수) ~ 2. 1.(수) (8일)
	합격자 발표		2023. 2. 6.(월)까지
	합격자 등록		2023. 2. 7.(화) ~ 9.(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2. 1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3. 2. 17.(금)

2) 2023학년도 정시모집의 특징

2023학년도는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22.0%(전년도 24.3%)인 76,682명(전년도 84,175명)으로 모집인원이 전년도보다 7,493명이 감소한다.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27,941명을 모집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을 전부 합한 29,471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정시모집인원은 서울소재 대학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나오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41.0%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전국대학의 정시모집인원을 군별로 비교해보면 가군과 나군이 각각 28,282명, 29,227명으로 비슷하며 다군의 경우 15,535명으로 가장 적다

〈최근 3년간 정시전형 모집인원 변화〉

구분	모집인원(명)	비율(%)
2023학년도	76,682	22.0
2022학년도	84,175	24.3
2021학년도	80,073	23.0

3) 정시 군별 모집대학 현황

구분	정시모집		
	가군	나군	다군
2023학년도	139	145	122
2022학년도	139	143	124
2021학년도	139	138	122

4) 각 군별 모집대학 현황

분할 모집군	대학 수	대학명
가	18	고려대, 광신대, 김천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부산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영남신학대, 제주국제대, 창신대, 청운대, 총신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세대, 호남신학대
나	22	감리교신학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꽃동네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중앙승가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려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다	16	가야대, 금강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서울장신대, 신경대, 영산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칼빈대, 한경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동대
가/나	34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경주대, 경희대, 광주여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아대, 목원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숙명여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전북대, 종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밭대, 한양대, 호서대, 호원대
가/다	17	광주대, 군산대, 나사렛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울한영대, 순천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해양대, 한신대
나/다	19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벌), 경운대, 극동대, 동덕여대, 서울기독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우석대, 위덕대, 인천가톨릭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한라대
가/나/다	70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명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결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안동대, 영남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남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교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홍익대



5) 2023 주요 대학별 정시모집 군별 모집인원

대학명	인문			자연		
	가	나	다	가	나	다
가천대	237	33	181	211	257	347
가톨릭대	104	64	105	111	67	152
강원대	184	134		233	292	
건국대	70	310	9	412	251	52
경기대			472			314
경북대	200	244		573	475	
경상대	105	96		117	213	
경희대	721	87		352	612	
고려대	680			690		
광운대		108	162	267		209
국민대	136	120	173	166	162	44
단국대	85	233	158	28	123	168
덕성여대		213		165		
동국대	225	321		267	193	32
동덕여대		103	111		57	81
명지대		195	250	288	95	34
부산대	289	205		508	485	
삼육대	64		24	120		72
상명대		269			225	
서강대		369			224	
서울과학기술대	69	22		363	301	
서울대		448			690	
서울시립대	45	295		12	359	
서울여대	142	41	193	146	16	80
성균관대	357	281		222	473	
성신여대	262			71	182	
세종대	144	117		180	523	
숙명여대	522			299	53	
송실대	427	39	48	84	41	477
아주대			177		10	435

대학명	인문			자연		
	가	나	다	가	나	다
연세대	698			642		
연세대(미래)		271		129	27	
이화여대		336			373	
인하대	159	165	91	187	279	217
전남대	185	122	10	330	301	33
전북대	305	58		344	546	
제주대		177	147		159	268
중앙대	274	247	197	465	277	168
충남대	267	106		307	455	
충북대	149	158		253	366	
한국교원대	100			51		
한국외국어대	309	511	277	17	130	124
한국항공대			28	86	86	31
한양대	322	76		504	206	
한양대(ERICA)	124	94		251	139	
홍익대			234			531

정시지원은 수시와 다르게 각 군별로 1개씩 지원하여 최대 3개의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군별의 지원 시기는 겹치지 않고 연속적인 일정으로 짜여 있어, 지원 시기를 놓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시지원 시기에는 지원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는 가/나/다 3개의 군을 모두 포함하여 총 1개의 군에만 있기 마련이다. (교차 지원을 받는 학과의 경우 다른 군에 같은 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 시 꼭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지원을 원하는 학과 또는 학교가 같은 군에 있다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지원 성격으로 분류한다. 지난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본인의 성적보다 높은 학교 또는 학과로 지원하는 상향 지원, 본인의 성적대보다 약간 높은 소신 지원, 본인 성적에 맞는 안정 지원, 본인 성적보다 낮은 곳으로 지원하는 하향 지원이 있다. 각 군별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이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분배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서울 주요 16개 대학교 정시 확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 신입생의 약 42.1%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전국 대학 대비 정시 비율인 22.0%에 비해 매우 큰 수치이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정시로 뽑는 인원은 4,761명으로 2022학년도에 비해 538명이 증가하였다. 서울 상위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21,873명으로 2022학년도에 비해 2,577명이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정시 모집인원의 증가로 어떤



전형의 모집인원이 감소했을까?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이다. 2022학년도까지 모집인원의 35.4%를 차지했던 학생부종합전형이 2023학년도부터 33.7%로 다소 감소한다. 실질적으로 정시 42%, 학생부종합전형 33.7%로 정시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정시는 수능 위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대입 전형을 간소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실제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수시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시의 비중이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을 뛰어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고1, 고2 학생들이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학교 내신에 몰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시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둘째, 실제 정시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뒤에서 서술할 ‘수시 이월 인원’은 수시에서 미등록,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수시 이월 인원이 2022학년도와 유사할 것이라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추가 모집인원을 적용한) 정시모집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다. 즉, 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정시 공부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별 2023학년도 기준 정시 모집인원과 선발 비율이다.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정시 비율〉

대학	정시 비율(%)	정시 인원(전년도 대비 증가)
서울시립대	49.1	904(175)
숙명여대	44.7	1099(291)
경희대	44.5	2409(439)
연세대	43.3	1639(127)
중앙대	43.1	2178(645)
한양대	43.0	1415(136)
한국외대	42.6	1553(14)
송실대	42.1	1299(170)
서울대	40.7	1413(384)
서강대	40.5	695(-1)
성균관대	40.1	1475(27)
동국대	40.1	1257(32)
고려대	40.0	1709(27)
건국대	40.0	1361(2)
광운대	40.0	768(96)
서울여대	40.0	699(13)

나. 정시모집 전형요소,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 수능 성적 반영 비율

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인 80,073명의 91.2%에 해당하는 69,911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인원수와 함께 수능 위주 모집인원이 6,067명 줄었지만 비율은 약 1.0% 증가했다.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정시	수능 위주	75,978	90.2	69,911	91.2
	실기 위주	7,470	8.9	6,150	8.0
	학생부(교과)	201	0.2	252	0.3
	학생부(종합)	347	0.4	313	0.4
	기타(재외국민)	179	0.2	56	0.1
소계		84,175	100	80,073	100

2)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이란, 말 그대로 수시에서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말한다.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복 합격 등으로 인한 미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계획만큼의 인원을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 채우지 못한 인원만큼 정시로 이월해 최종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한다. 즉,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발표되기 전과 후의 최종 모집인원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이월 인원〉

대학	정시모집 최초 인원	수시 이월 인원	정시모집 최초 인원 대비 이월 비율(%)
가톨릭대	554	41	7.40
건국대	1,191	38	3.19
경기대	954	105	11.01
경희대	1,548	138	8.91
고려대	786	151	19.21
광운대	641	57	8.89
단국대	862	20	2.32
동국대	811	66	8.14
동덕여대	584	186	31.85
상명대	529	34	6.43
서강대	477	78	16.35



대학	정시모집 최초 인원	수시 이월 인원	정시모집 최초 인원 대비 이월 비율(%)
서울과학기술대	833	65	7.80
서울대	751	47	6.26
서울시립대	681	107	15.71
성균관대	1,128	90	7.98
성신여대	809	106	13.10
세종대	968	270	27.89
숙명여대	683	58	8.49
송실대	947	79	8.34
연세대	1,230	206	16.75
이화여대	927	97	10.46
인천대	886	35	3.95
인하대	920	116	12.61
중앙대	1,252	36	2.88
한양대	910	24	2.64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지표

정시로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뽑히게 되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각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와 각 학교별 과목별 가중치 및 환산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받는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100점만점으로 95점, 80점, 70점이 적혀있는 것이 아닌 ‘표준점수’라는 것이 기입되어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 길 동		04.09.05.	남	한국고등학교 (9)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물리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93	95		75	93	
등 급	2	2	2	1	4	2	2
2022. 12. 9.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장							

표준점수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매길 때 응시영역과 과목의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산출하는 점수로 표준점수란 전체평균을 100으로 놓고 분포시킨 상대점수이다. 따라서 시험이 어려울수록, 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표준점수가 높아진다. 각 대학은 각자의 기준으로 이러한 표준점수를 변환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학년도 건국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건국대는 2023 정시모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목별 반영 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계열	국어	수학(기/미/확)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인문계	30	25	15	5	25
사회계	25	30	15	5	25
자연계	20	30	15	5	30

만약 한 학생이 사회계열에 지원했다면 ‘10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표준점수에 과목별 반영 비율을 곱해 총점을 계산한다. 식은 다음과 같다.

$$Y = [\text{국어 표준점수} \times 0.25(\text{반영비율})] + [\text{수학(확통) 표준점수} \times 0.30(\text{반영비율})] + [\text{영어 본고 등급별 환산점수} \times 0.15(\text{반영비율})] + [\text{한국사 본고 등급별 환산점수} \times 0.05(\text{반영비율})] + [(\text{사탐1 본고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text{사탐2 본고 백분위변환표준점수}) \times 0.25(\text{반영비율})]$$

이처럼 각 대학은 나름의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성적을 변환해 학생을 선발한다.

〈각 대학별 2023 과목별 반영 비율〉

대학		대학별 반영 비율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건국대	인문1	30	25	15	25	5
	인문2	25	30	15	25	5
	자연1	20	35	15	25	5
	자연2	20	30	15	30	5
경희대	인문	35	25	15	25	
	사회	25	35	15	25	
	자연	20	35	15	30	
고려대	인문	35.7	35.7	감점	28.6	가산
	자연	31.25	37.5	감점	31.25	가산
동국대	인문	30	25	20	20	5
	자연	25	30	20	20	5
서강대		37	43	가산	20	가산
서울대		33.3	40	감점	26.7	감점



대학		대학별 반영 비율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서울시립대	인문1	35	30	15	20	감점
	인문2	30	35	25	10	감점
	자연	20	30	20	30	감점
성균관대	인문	35	35	가산	30	가산
	자연	30	35	가산	35	가산
숙명여대 (일부학과 상이)	인문	35	25	20	20	가산
	경상	30	30	20	20	가산
	자연	25	35	20	20	가산
연세대	인문	33.3	33.3	16.7	16.7	가산
	자연	22.2	33.3	11.1	33.3	가산
이화여대	인문	30	25	20	25	가산
	자연	25	30	20	25	
중앙대	인문	40	40	가산	20	가산
	자연	25	40	가산	35	가산
한국외대		30	35	15	20	가산
한양대	인문	30	30	10	30	감점
	상경	30	40	10	20	감점
	자연	20	35	10	35	감점
홍익대	인문	30	30	15	25	가산
	자연	20	35	15	30	가산

전 과목을 골고루 잘 보는 것과 특정 과목만 잘 보는 경우도 지원 대학과 계열에 따라 환산점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국/수/영/탐/한 중 어느 과목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춰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군에 따라 ‘학생부+수능’, ‘수능100%’ 등 전형요소를 달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시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필요에 따라 학생부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희망대학의 수능 성적 활용지표를 확인하고 학력평가 성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것이 수시 및 정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4.2. 정시전형에서 영어성적의 영향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었다. 영어성적은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의 10점 단위로 등급만 표시되기 때문에 같은 성적을 받은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특징이 있다.

가. 정시전형에서 영어영역 반영방법

영어성적은 정시전형에서 각 대학의 반영 방식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총점에서 영어를 가점 또는 감점하여 반영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영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영어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다 총점에서 작게는 0.5점~2점 정도만을 가감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한 두 등급 낮게 나온다고 해도 총점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영어를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실제 영어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두려고 의도한 경우가 많다.

둘째, 대학 임의로 각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만들어서 영어 백분위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많은 대학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 백분위 환산점수의 등급 간 점수 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실제 영어성적이 총점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영어는 원점수 10점 단위의 한 등급으로 구간이 나뉘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한 등급만 미끄러지더라도 총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백분위 환산점수에 의한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영어성적을 반드시 환산해 보아야 유불리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가 쉬워졌다거나 영어의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영어를 2등급 받는 순간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평소 영어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능의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의 장점은 다른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면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경우 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니 평소 목표한 점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1) 대학별 영어 등급별 환산점 예시 (2022 대입 기준)

대학	계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건국대	인문	200	198	196	193	188	183	180	170	160
	자연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경희대	전체	2006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전체	0	-1	-3	-5	-7	-9	-11	-13	-15
광운대	전체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대학	계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민대	전체	100	98	95	90	85	80	75	70	0
동국대	전체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서강대	전체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울과기대	전체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서울대	전체	0	-0.5	-1	-1.5	-2	-2.5	-3	-3.5	-4
성균관대	인문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자연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숙명여대	전체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연세대	전체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이화여대	전체	100	98	94	88	84	80	76	72	68
중앙대	인문	100	97	93	88	80	72	61	55	50
	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32
한국외대	인문	140	138	134	128	120	110	90	60	0
	자연	105	104.5	103.5	102	100	97.5	94.5	90	0
한양대	인문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6	90	82	72	60	46	30	12
홍익대	전체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4.3. 추가모집의 이해

가. 추가모집의 일정 및 특징

추가모집	기간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	2023. 2. 20.(월) ~ 28.(화) 18시까지
등록 기간	2022. 2. 28.(화)

대학입시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 추가모집의 선발인원은 일정하지 않다. 2021학년도의 경우 전국 4년제 대학에서 26,129명을 선발하였는데, 2020학년도에 추가로 모집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늘었다. 정시모집에서 중복합격한 인원이 줄면 대학은 결원이 많지 않게 되어 추가모집의 모집인원도 줄어들게 된다.

추가모집은 수시 및 정시모집과 달리 대학별 전형 일정이 다양하다. 원서접수 기간 내 하루만 원서를 받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추가모집에도 결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추가모집 지원 시 횟수 제한은 없다.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수시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고, 정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다. 수시 합격에는 최초 합격이나 총원합격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정시에서 합격해 등록한 경우라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대와 산업대는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등록까지 했다고 해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로 지원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추가모집은 정시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낮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수능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지원전략으로 3개 군에서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 추가모집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원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소신껏 지원하고 과감한 지원전략을 짜는 요인이 된다.

나. 주요대학 추가모집 현황 (2021학년도 기준)

구분	대학별 모집인원
서울	광운대(24), 국민대(34), 덕성여대(12), 동국대(29), 동덕여대(24), 명지대(23), 삼육대(9), 상명대(10), 서경대(5), 서울과학기술대(38), 성신여대(15), 세종대(35), 송실대(41), 케이씨대(29), 한국외대(41), 한성대(25), 홍익대(47명) 등
수도권	가천대(26), 가톨릭대(19), 경기대(21), 단국대(30), 명지대(23), 성결대(15), 수원대(24), 신경대(177), 신한대(17), 안양대(44), 용인대(9), 을지대(15), 인천대(12), 인하대(25), 차의과학대(5), 한경대(29), 한국산업기술대(22), 한세대(30), 한신대(14), 한양대(에리카25), 협성대(64) 등

* 수능 위주 일반전형 기준, 대교협 발표자료

V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5.1. 주요 발표 내용

2024학년도 대입제도는 2023학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 2024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 대학의 정시전형 비율을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권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

- 국어·수학·직업탐구 공통 + 선택형 구조
- 사회/과학탐구 자유롭게 2과목 선택 가능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

■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수상경력/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활동/소논문(R&E)/방과후학교활동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 영재 발명교육/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 자율활동(500자), 동아리활동(500자), 진로활동(700자)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 지향
-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나. 고교교육 혁신 방향

■ 고교학점제 도입

- 1단계: 2018~2021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대입전형 자료 제공
- 2단계: 2022~2024년 학점제 부분도입(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 3단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차기 교육과정 적용)

■ 고교체제 개편

- 1단계: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 시기 후기로 변경)
- 2단계: 2018~2020년 성과평가를 통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
- 3단계: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

5.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방안

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1)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권고

-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 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재정지원과 연계
 -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조건 부여
 - 단,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나타난 전형유형(교과, 종합, 수능)별 모집인원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형 유형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54,464	44.2	148,506	42.9	5,958
	학생부(종합)	81,390	23.3	79,503	22.9	1,887
	논술 위주	11,016	0.3	11,069	3.2	-53
	실기 위주	21,014	6.0	18,817	5.4	2,197
	기타(재외국민)	4,558	1.3	4,483	1.3	75
소계		272,442	78.0	262,378	75.7	10,064



구분	전형 유형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정시	수능 위주	69,911	20.0	75,978	21.9	-6,067
	실기 위주	6,150	1.8	7,470	2.2	-1,320
	학생부(교과)	252	0.1	201	0.1	51
	학생부(종합)	313	0.1	347	0.1	-34
	기타(재외국민)	56	0.0	179	0.1	-123
소계		76,682	22.0	84,175	24.3	-7,493
합계		349,124	100	346,553	100	2,571

2023학년도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2022학년도 대비 2.3% 감소한 22.0%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3% 증가한 44.2%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0.4% 늘어난 23.3%를 선발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대상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정시가 더욱 확대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 인원이 10,064명 증가하고 정시모집 인원은 7,493명 감소했다.

수시모집은 수도권 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주요 대학은 정시 비율이 41.0%로 2022년도에 비해 1.9% 늘어났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1.4%로 변화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33.7%로 2022학년도보다 1.7% 줄어들었다.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수시모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주요 대학의 정시전형 비율을 상승시켜서 수시시험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학생들은 수시의 학생부전형과 정시의 수능전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고민하되 두 전형 모두 고입 초기부터 꾸준히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정시 비율〉

대학	정시 비율(%)	정시 인원 (전년도 대비 증가)
서울시립대	49.1	904(175)
숙명여대	44.7	1099(291)
경희대	44.5	2409(439)
연세대	43.3	1639(127)
중앙대	43.1	2178(645)
한양대	43.0	1415(136)
한국외대	42.6	1553(14)
송실대	42.1	1299(170)
서울대	40.7	1413(384)
서강대	40.5	695(-1)

대학	정시 비율(%)	정시 인원 (전년도 대비 증가)
성균관대	40.1	1475(27)
동국대	40.1	1257(32)
고려대	40.0	1709(27)
건국대	40.0	1361(2)
광운대	40.0	768(96)
서울여대	40.0	699(13)

서울에 위치한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위의 표에 작성된 인원을 정시로 뽑는다. 2023학년도의 모집인원은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을 40%로 높이고 이를 2022학년도에 최대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대로 42.12%로 증가하였다. 상기 16개 대학은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 중 1만9296명을 수능으로 선발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2만1873명을 선발한다.(2577명 증가) 그중 가장 증가폭이 큰 곳은 중앙대로 645명 늘어난 2178명(43.1%)을 수능 전형으로 뽑는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은 크게 낮아진다.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1만 7531명으로 전년도 812명 줄어든다. 서울대 317명, 중앙대 197명, 경희대 150명, 숙명여대 136명이 감소한다.

이런 변화는 '모집전형 균형화'라는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쏠려있는 대입정책에서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따라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제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 수시와 정시를 동등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학생부와 내신성적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정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김
- 단, 선발 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함

기존의 대입제도는 수시전형은 학생부중심, 정시전형은 수능 중심으로 구분하여 수시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장하던 것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였다. 정시전형 모집인원 증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이 증가하면서 수능시험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모집에서 떨어진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합산점수를 활용하는 정시전형에서는 특정 등급보다는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시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합격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려는 경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즉, 정시와 수시에서 모두 수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수능 준비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 국어 : 공통과목(독서, 문학)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 수학 : 공통과목(수학I, 수학II) +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영어, 한국사 : 절대평가 유지
- 탐구(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택2
- 탐구(직업계) :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 5개 계열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절대평가 전환)

영역	출제범위(선택과목)
국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공통 : 수학I,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 영어II
한국사	한국사
탐구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I, 과학II)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4) 수능 EBS 연계율

- ◆ EBS 연계율은 50%로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간접연계)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연계로 인한 문제점 해소

EBS 연계교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EBS 교재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한다고 했으므로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재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책을 살펴볼 수는 없기에 기본이 되는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문이나 도표 그림 등의 자료가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선에서 변형되기 때문에 특정 자료를 암기하려는 방식의 공부가 아닌 EBS 연계교재에 제시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개념학습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5)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인적·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상황	- ‘미인정’은 불성실함의 근거					
수상경력	- 교내상만 입력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진로 희망사항	- 진로희망은 창체진로활동 영역에 기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자율동아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소논문 활동	-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 재학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 대입 활용자료 미제공					
청소년단체 활동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정규교육과정 내 클럽: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기재					
봉사활동 실적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방과후학교 활동	- 학생부에 미기재					
기재 분량 감축	- 각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축소					
	항목	현행				
	창체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500					

#수상경력(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그동안 '상을 많이 받는 것'에 중점을 둔 학생들이 많았고 수상의 등위보다도 일단 수상 자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대입에 반영되는 최대 개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학기당 수상경력 기재를 단 1개로 제한하는 만큼 수상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또한 총 개수가 6개로 제한되는 만큼 수상의 등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교내대회의 도전 여부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동아리(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는 진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겨져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던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동아리명과 간단한 동아리 소개만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다만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으므로 학생 스스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 학기 한 개 이상 기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맞는 동아리를 신중하게 만들거나 가



입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소논문(R&E)

소논문 작성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2022학년도부터는 소논문을 학생부 전 영역에서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논문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연구활동이 '탐구보고서' 등의 다른 이름으로 학생부에 기록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방과후학교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사교육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년이 높을수록 수능 문제풀이 형태의 수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수업들, 발표나 토론 형태의 수업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곤 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활동의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해지면 이러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실시 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록항목이다. 특히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경우 학생부 각 영역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 기재분량이 축소되면서 학생부의 변별력은 줄어들었다. 이는 교내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학생부의 분량을 늘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어든 글자 수 안에 기록한 활동의 내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의 양보다는 질이 좋아져야 한다. 학교에서 아무 활동이나 많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보다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깊이 있게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6)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개선 (2024학년도 폐지)

- 1번 의미 있는 학습경험과 교내활동 (1,500자)
- 2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800자)
- 3번 자율문항

◆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원 모집단위 관련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핵심 소재를 잘 선정하고 필요한 내용만을 깊이있게 서술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된다.

한편, 교사추천서는 기존에도 합격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핵심적인 서류는 아니었기에 교사추천서 폐지는 교사와 학생이 갖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7)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 미제공

각 대학마다 면접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확인 면접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도 면접 방식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권장해왔으며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미 학생부 기반 면접을 많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제시문 기반의 구술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현재와 같이 면접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다.

블라인드 면접은 현재 2019학년도 대입부터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부를 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단순히 성명과 수험번호, 출신고교만을 가린다고 해서 학생의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면접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는 있으나,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8) 지필고사 개선 방안

◆ 수시 적성고사 폐지 추진

- 수능과 유사하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 폐지
-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와 논술전형은 학교의 내신성적을 대학별 고사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형으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형이다. 논술의 경우 학생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측정하는 문항 등을 내세워 수능과는 차별화 된 전형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적성고사는 수능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출제하기에 수능과 차별성이 없어서 대입간소화 정책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구분	'24학년도 이후
수능위주 전형비율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수능최저 학력기준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수능출제 범위	국어(공통) : 독서, 문학 / 국어(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공통) : 수학I, 수학II / 수학(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구분	'24학년도 이후
	영어 : 영어I, 영어II 한국사 : 한국사 탐구(일반) : 계열 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 과학 : 8과목 탐구(직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한문 : 9과목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22학년도 부터 대입 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 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 규정 신설
선발결과 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 수 공시
면접· 구술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現 고2~고3 (22~23학년도 대입)	現 고1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③ 비교과 영역	자율 활동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 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구분		現 고2~고3 (22~23학년도 대입)	現 고1 (24학년도 대입)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명과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나.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란?

-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

◆ 고교학점제의 효과

- 학생선택권 보장
- 다양한 과목 개설
- 진로교육
- 학생 참여형 수업
-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 필수·선택 이수학점 제시
- 평가제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실시·평가 후 성취수준 미달 시 학업보충기회 제공
- 졸업제도: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이나 졸업이 아닌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 설정

〈고교학점제 시행 로드맵 및 이에 따른 예상 변화 내용〉

학점제 정부 로드맵	적용 교육과정	해당 학년	대입 학년도	확정 또는 예상되는 변화 내용
1단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18~’21년)	고3	2019 2022	2022 대입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고2	2020 2023	
		고1	2021 2024	
2단계 학점제 부분도입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22~’24년)	중3	2022 2025	2022 대입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 2015개정교육과정 일부개정 과정 (‘18)정책연구→(‘20)일부개정고시→(‘22)고1 적용 →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 적용(학점기준 설정) → 이에 따른 대입제도 일부 수정개편 가능성 있음 → 학점제 확대 따른 성취평가제 확대 가능성 있음
		중2	2023 2026	
		중1	2024 2027	



학점제 정부 로드맵	적용 교육과정	해당 학년	대입 학년도	확정 또는 예상되는 변화 내용
3단계 학점제 本格 시행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25년)	초6	2025 2028	* 차기 교육과정 개정(학점제 전면 실시 교육과정) (‘20)개발→(‘22.상)개정고시→(‘25)고1적용 → 2022개정 교육과정: 학점제 전면 실시 → 전면개방형 선택형 교육과정 가능성 높음 →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실시 가능성 높음 → 수능 절대평가 실시 가능성 높음 → 종합변형 비율 증가 가능성 높음

2022 대입제도개편안에서 함께 제시된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그리고 내신성취 평가제 등의 내용변화는 2021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2025년에 비로소 완성된다. 2단계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과도기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따라 대입제도나 내신성취 평가제 등은 과도기 성격에 맞게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2025년까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변화의 폭은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고교교육 혁신 방향으로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는 3단계의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을 잘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도개편의 방향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내용〉

◆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

- * 진로선택과목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 대입정보 제공 안 : 석차 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제공)

[진로 선택과목 성취도 표기]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수준 학생 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25년~) 모든 과목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

~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면 개정(‘25, 고1 대상)

일반선택 교과와 달리 경쟁 없이 성취도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은 자사고나 특목고 등 기존에 내신이 불리했던 학교들에서 내신 경쟁을 완화시켜 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에 단순히 이수 여부만을 표시하는 성적인 ‘P’가 아닌 성취도 성적이 A~C까지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성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완전히 무시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대학마다 반영하는 진로선택과목의 개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전히 주요 교과목 중심의 내신성적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5.3.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가.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학 진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대학들의 연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대학들이 해당 전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내신성적이 매우 낮아도 스펙이 탄탄하면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내신 평균이 6등급인데 외부활동으로 로봇 만들기 활동을 해서 큰 상을 받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배제된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내신)과 수업 내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수업 중 교과활동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즉 차별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참여 중 활동력, 협업, 발표 등도 매우 중요하다.

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모든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간과하고 입시를 생각할 수는 없다. 정시전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도 현재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비율을 넘어서지는 않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여전히 주요한 전형이다. 따라서 주요 대학들이 소개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학생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을 통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말한다.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다. 학생부란 무엇인가

1)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의 학생의 이수 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중심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를 학생의 담임교사, 담당 교과목 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 등 학생을 가르친 모든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이다.



2) 학생부 항목별 내용

연번	항목	내용
1	인적&학적사항	성별, 주소, 전학 상황 등
2	출결상황	질병·미인정·기타
3	수상경력	교내상만 기록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내용(제한 있음) 대입자료로 미제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포함)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내용 기록
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각 과목별 담당 교과목 교사가 수업 태도, 학업역량에 대해 기록(방과 후 학교 참여 상황 미기재)
7	독서 활동 상황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의 내용 기록(담임교사, 교과목 교사 담당)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

3)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평가 영역 및 내용

영역		평가요소	평가 내용
교과	교과 관련 활동	전체 교과 성적	상위 등급 과목은 몇 개나 있는가?
		학년별 교과 성적 추이	3개년 동안 전 과목 평균 등급이 향상되었는가?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전공 관련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은 우수한가?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참여도가 높은가?
		자기주도학습	심화학습, 주제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였는가?
비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동아리 활동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였는가?
		봉사 활동	지속적이고 진정성있는 봉사활동을 하였는가?
		진로 탐색·체험 활동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하였는가?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학교행사/학급행사 등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리더십	학교/학급 등에서 임원을 맡아 실적을 남겼는가?
		학업 의지	5개 학기 동안 개근하면서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교우 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적힌 교우관계/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가?
	인성 평가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타인 존중, 관계 지향성 등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가?	

VI

과목별 고득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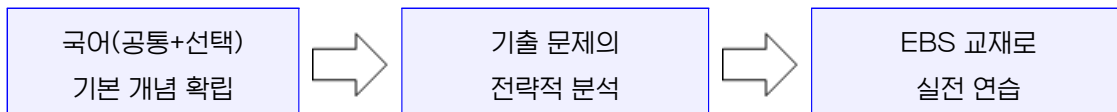
과목별 고득점 전략

6.1. 국어

국어는 모든 교과와 기본이 되는 도구 과목이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내신 국어의 경우 출제자이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시험 범위 내의 지식을 빈틈없이 암기하면 만점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수능 국어는 단순히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국어와는 다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가. 단계별 학습전략

수능 국어는 ‘독서’, ‘문학’의 공통과목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기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출제 요소와 빈출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출 분석을 모두 끝냈다면 EBS 교재 중심의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꾸준히 하여 답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확립해야 한다.



1) 기본 개념을 확립하자!

1단계는 ‘개념 확립’이다. 국어의 기초 개념들은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 선지에 제시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지 못해 문제 풀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국어영역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심 개념 또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제시하거나, 지문의 흐름 및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여 선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가령 독서 영역의 경우, 논지 또는 문제 상황 제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모색, 특정 이론에 대한 반박, 절충안 제시, 통시적 고찰 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문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묻는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어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면 될까? 바로 EBS의 강좌와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강좌 중에서도 올림포스 강좌와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리즈의 강의와 그 교재들은 수능 대

비를 위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필수 개념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므로, 출제자가 주로 활용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기출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 기출의 중요성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혀본 후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란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자들이 자주 출제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화법’이나 ‘작문’에서 주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가, ‘문법’에서 개념을 묻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독서’에서 지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구성은 어떤 것이며 항상 출제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문학’에서 지문으로 제시되는 작품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장르별로 항상 출제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패턴을 익히고 그에 대한 대비법을 확립하는 것이 기출을 분석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답지와 오답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국어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독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수험생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된 문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선택지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며, 그 과정에서 선지에 함정을 설계한다. 그렇다면 출제자는 어떻게 선지에 함정을 설계하는 것일까? 출제자는 선지에 지문의 정보를 변형하여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것처럼 위장한다. 다음 기출 지문의 일부를 보고 출제자가 선택지에 어떤 함정을 설계했는지 파악해 보자.

지문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
선지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출제자는 선지에 ‘열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은 입자’에 해당되는 것인 양 함정을 설계했다. 즉 제시된 선지는 수은 입자에 대한 내용 범주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인데, 이것을 수은 입자의 특징으로 읽어냈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견해나 주장의 주체를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단순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덤벼들지 말고, 선지에 설계된 함정의 정체를 찾아내는 눈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자. 이를 위해서는 EBSi에서 제공하는 기출 문제 해설 강의나 기출의 미래 같은 수능 기출 관련 강좌를 통해 선생님들의 선지 분석법을 잘 봐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출제 요소로 활용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를 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EBS 교재로 실전 연습을 충실히 하자!

1단계와 2단계가 잘 다져진 뒤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실전 대비’이다.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했다면,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항을 중심으로 실전 연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항은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준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실전 연습을 하기에 최적화된 지문과 문항이라 말할 수 있다. 양질의 글과 문제로 실력을 기르고 다지는 것은 실전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해 본다면 시험 긴장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국어 1교시가 주는 긴장감과 부담감은 상당하다.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수험생은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이 과도해지면 결국 본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수능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연습하여 1교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1교시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습하자.

나. 국어 파트별 학습전략

1) 독서

‘독서’는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다. 독서 영역에 나오는 지문은 보통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야의 지문을 골고루 출제하였는데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나의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의 개수가 줄고 있다. 또 하나의 지문에 두 개 분야의 내용이 통합된 지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서’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을 찾는 정보가 글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각 문단의 화제어와 핵심어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문제의 답은 지문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지나치게 활용하거나 창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문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제재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윤리, 사상, 심리, 역사, 논리학, 고고학, 신화학, 종교학, 인류학 등이다. 인문 분야의 글을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체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세부 내용이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및 이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 지문을 현실 상황이나 다른 관점에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중심 제재와 관련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글쓴이와 학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 영역은 사회 현상, 정치, 경제, 법률, 언론, 광고, 문화 등 광범위한 범위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영역은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 온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법이나 경제 분야가 나올 때 정답률이 낮은 편이며, 최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 글, 경제 현상과 관련된 글, 사회 복지 제도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등에 대한 글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자료 해석하기 등의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고, 사회 영역의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중심 화제나 핵심 내용을 표시해 가면서 읽고, 글쓴이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영역은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문항 유형에서는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의 파악, 세부 내용의 추론,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어휘의 의미 파악’ 등의 기존의 유형들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대표 문항으로 주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보기>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지문’의 완벽한 이해 여부에 달려 있다.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기>를 해석하면 출제 의도에 따르기보다는 자기만의 해석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기>의 내용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보기>의 사례는 지문에서 글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 혹은 예시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둘을 따로 생각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 지문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의 작동 원리 및 그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 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전자, 전기, 음향, 건축, 디지털, 전통 기술, 의료 공학 등을 다루고 있다.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과 관련된 기술이라도 그 원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 지문이 어떠한 과학 이론을 심화하여 설명하거나 과학자가 발견한 과학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술 지문은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탄생 배경, 기술의 작동 원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문에서 설명한 기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항도 거의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명하는 기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술 영역은 동서양의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축, 조각, 사진, 공예, 예술 사조, 예술 철학, 미학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의 글들이 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문에서 설명한 예술 사조나 예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밑줄 친 부분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진 의의를 추론하는 문항이 까다로운 편인데, 예술 작품 또는 예술 사조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을 잘 표시해 둔다면 추론을 하기 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술 영역의 글을 읽을 때는 핵심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지,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지, 특정한 작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자.

2) 문학

수능 국어의 ‘문학’은 크게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수필,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현대시와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대개 ‘화자의 태도와 작품의 정서 이해’,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시상 전개 방식 파악’, ‘표현상의 특징 이해’, 그리고 작품 해석의 준거가 되는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는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특히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한다. 따라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지는 사용된 기법과 그로 인한 효과가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데, 사용된 기법에는 주로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등이 제시되며 그 기법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얻어지는 효과가 제시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현대시에 문학 이론을 추가하여 지문이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문학 이론은 <보기>의 확장판이나 마찬가지로 그 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과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고전 시가의 경우 고어 표기로 된 작품을 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고전 시가의 전형적인 주제와 흔히 사용되는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를 미리 파악하고 작품을 대하면 작품의 의미나 시어, 시구 등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EBS 교재에 제시된 고전 시가 작품을 우선적으로 섭렵하여 작품의 시어와 시구 등을 충분히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산문 문학 중 소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유형과 성격 이해’, ‘갈등의 원인과 종류 파악’,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인물의 제시 방식 파악’, ‘소재 및 배경의 서사적 기능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어휘 및 관용 표현의 적절성 평가’ 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소설을 읽을 때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지 이야기 속에 있는지,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등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다. 또한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지,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구조인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기출 문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서술상 특징들의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한 후,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며 적용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제외한 산문 문학은 극문학과 수필이다. 극문학의 경우는 ‘인물의 성격 파악’, ‘갈등의 구조 및 사건의 전개 양상 이해’, ‘극적 형상화 기법의 적용’ 등의 문제가 출제되며, 수필은 주로 ‘작가의 관점 및 태도 이해’, ‘교훈적 주제 파악’, ‘서술상의 특징 및 개성적 표현 이해’ 등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수필의 경우, 작품에 제시된 특정한 소재나 제재를 글쓴이가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까지 파악하도록 한다. 극문학의 경우에는 극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문제에 주목하여 희곡의 경우 무대 형상화와 관련한 문제, 시나리오의 경우 촬영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화법과 작문

‘화법’은 말하고 듣는 전략과 방법에 관한 과목이다. 화법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 화법 영역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매년 수능에 빠지지 않고 말하기 방식을 추론하는 문항이 바로 ‘말하기 방식’ 유형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므로, 화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말하기 방식을 추론하는 문항의 선지는 보통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말하기 방식의 효과’가 함께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에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진술과 ‘말하기 방식의 효과’에 해당하는 진술을 구분한 다음, 지문과 연결 지어 각각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파악해 가며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듣기 전략 파악 유형은 청자의 메모나 생각을 바탕으로 청자가 사용한 듣기의 전략을 추론하거나 담화에 대한 청자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말하기와 달리 듣기는 이해 활동이므로, 이런 문항의 경우 담화의 내용과 연관 지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듣기 전략 파악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메모와 같이 화자의 듣기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경우에는 담화 속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에 제시된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

‘화법 참여자의 계획 이행 및 효과적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유형’은 출제 원리상 지문 속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항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문’은 글쓰기의 절차와 요령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어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출 문제를 보면 작문의 과정이 출제 요소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설득을 위한 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 자기표현 및 자기 성찰을 위한 글 등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글이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작문에서 다루는 지문의 소재는 실용적인 내용, 시사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 등 다양한데, 이러한 소재는 글의 목적에 따라 설명문, 건의문, 논설문, 감상문, 식사문, 자기소개서, 기사문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번갈아 가며 출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각 글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방법 및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문의 유형 중에서 ‘고쳐쓰기의 적절성’은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오류를 바로잡고, 글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글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 이를 직접 고쳐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 왔고, 최근에는 기존에 작성한 글과 검토 의견을 반영한 글을 일대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고쳐쓰기에 관한 검토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로 변형·확장되어 출제되고 있다.

또한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네 문제짜리 세트형 문항이 고정된 출제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작문 문제가

화법과 동일한 지문을 공유하며 출제되기도 하고, 해당 글을 보고 글쓰기 과정을 역으로 떠올려 볼 것을 묻는 등의 신유형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복잡해 보이는 화작복합 세트형 문항일지라도 각 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출제 요소는 결국 기존의 문항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실전 상황에서 과도하게 겁을 먹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4)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언어’는 기존의 ‘문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매체’는 시청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매체 다시 말해, 의사전달 도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 즉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문법’은 개념 학습이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문법 개념은 국어의 구조, 의미, 규범, 변천의 범주가 있다.

국어의 구조 영역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 변동, 형태소 분석, 단어 형성, 문장의 짜임, 담화 구성 원리 등 각 하위 영역에서의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또한 <보기>에 담긴 일상 언어생활 속 문법 요소들을 이해하는 유형이나, 다양한 사례를 하위 범주로 묶어 분석하는 유형, 실제 언어생활에 관한 자료에서 문법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을 다루는 유형 등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문법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장문의 지문을 제시한 뒤 내용 이해 정도 및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이나, 문법 현상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제시한 뒤 그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또한 국어의 단어 형성에 관한 공식적 서술과 통시적 서술이 복합된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탐구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확히 익혀 둘 필요가 있다.

국어의 의미 영역은 사전 정보 활용, 의미 관계 파악, 의미 확장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의미 영역은 그동안 출제가 꾸준히 되지는 않았지만 국어 문법 이론에서는 단어, 문장, 담화와 같이 언어 단위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 그 중요도가 적지 않은 이론 영역에 해당한다. 이 영역에서는 실제 국어 사전의 일부를 제시하고 그에 담긴 발음 정보, 문형 정보, 활용 정보, 의미 관계 정보, 용례 등에 대해 탐구해 보게 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동음이의의 관계, 다의 관계, 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 관계에 대해 파악해 보게 하는 유형도 출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에서 더 발전하여 의미와 관련된 이론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탐구하는 세트 문항 유형도 새롭게 등장하였고, 사전의 개정 내용을 탐구하는 내용을 묻는 등 문항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묻고 있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평소에 의미 관련 문제를 자주 접해 보고 풀어보는 것이 좋다.

국어의 규범 영역은 한글 맞춤법과 어법, 표준 발음법, 정확한 문장 표현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이 영역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 발음법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는 유형의 문제와 문법적 비문을 바로 고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어문 규정을 익히는 것은 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중요한 일이기에 이 영역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어문 규정이나 올바른 문장 규칙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법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어의 변천 영역은 주로 음운, 단어, 형태, 통사, 의미 영역의 국어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주로 중세 후기 국어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



제 되어왔다.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국어사 관련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현대어 풀이와 견주어 옛 국어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선택지에 문법 용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기본적인 음운 현상이나 형태론적, 통사론적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 문항 풀이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중세 국어 이론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보게 하거나 현대 국어의 문법 현상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문법’ 영역의 문제들은 대개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언어 자료를 통해 문법 개념을 탐구하는 활동을 해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와 개념 자체에 대한 정확한 학습은 물론, 이를 실제 언어 사례에 적용해 보는 연습 또한 병행해야 한다.

6.2. 수학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입맛에 100% 맞춰 줄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교과목을 크게 3가지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 2~3학년 때에는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중에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유리해지므로, 희망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경제 수학, 기하, 수학과제 탐구

나. 수학 파트별 학습전략

1) 수학

단원명	교과 특성
다항식	공통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1,2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기본을 다루고, 다른 단원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식의 계산보다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2) 수학I

단원명	교과 특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된다.
삼각함수	
수열	

3) 수학II

단원명	교과 특성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I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오히려 수학보다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변화율, 넓이에 대해 다루게 된다.
미분	
적분	

4) 미적분

단원명	교과 특성
수열의 극한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공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이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이공계열 진학에 필수이지만, 과목 특성상 복잡한 계산이 많고,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많다.
미분법	
적분법	

5) 확률과 통계

단원명	교과 특성
경우의 수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공부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비롯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	
통계	

6) 기하

단원명	교과 특성
이차곡선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 비해 다소 내용이 삭제되어 학습량이 줄어들었지만, 3차원 입체 공간을 사고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가 큰 편이다. 도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다.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수학’ 과목은 복잡한 식의 계산이 삭제되고, 기존 중학교에서 다루던 내용이 추가되어 전반적으로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수학’ 과목에는 기존 2009 교육과정에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이과 통합수업으로 인해 성적 산출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기하를 비롯해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었지만 학습해야 할 개념이 줄었다고 해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도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심화문제가 어느 과목에서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 중 어느 개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 수학 수준별 학습전략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때 유형별 문제만 가득한 문제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 교재이거나 주위 친구를 보고 따라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학습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나 ‘개념서’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어야지 단순 문제 풀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1) 최상위권 수준의 학생 : 내신 상위 10% 이내의 학생

“문제 풀이에 욕심내지 말고, 깊이 있는 개념공부와 직접 증명해보기!”

교과서를 소홀히 하거나 선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학생이 많다. 일반적으로 상위 10%의 학생과 상위 30%의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절대 역전당하는 일은 없다. 상위권 학생이 역전당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과목에 덜 투자하고, 나중에 필요한 과목에 많이 투자했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소홀히 한 개념 때문에 떨어진 성적을 다시 올리는 것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몇 배는 더 어렵다. 당장 필요한 과목에 집중하고, 선행은 방학 때 최대 1년까지만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 시험 과목에 집중할 것을 추천한다. 최상위권은 킬러문항(2~3문항)에서 승부가 나는데, 연산 능력에 자신이 있다고 암산으로 답을 찾거나 남들보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빠른 계산 속도는 초등학생에게나 자랑거리이다.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오히려 계산 실수가 잦고,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며 수행평가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공식을 증명해보고, 어려운 문제는 해설지의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며 똑같이 적어보길 추천한다. 수학 공부의 절반은 대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해결하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에, 나머지 절반은 고난도 문항을 충분히 고민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항 중 21번, 29번, 30번과 같은 최고난도 문항들은 여러 강사의 해설 강의를 통해 조건을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상위권 수준의 학생 : 내신 상위 10%~30%의 학생

“전교 1등 문제집&학원 따라간다고 전교 1등 되는 게 아니다. 부족한 개념부터!”

성적을 올리려면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듣는 강의, 다니는 학원, 푸는 문제집을 따라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많다. 이것은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산악인이 “오랜 시간의 연습으로 인해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전교 1등인 학생도 “오랜 시간의 연습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지 “저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서 성적이 올랐으니 나도 저 문제집을 따라 풀면 성적이 오를거야”라고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된다. 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역량은 킬러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킬러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이다. 킬러문제를 풀지 못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1등급, 2등급은 가장 어려운 2문항을 틀리더라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교과서와 개념서의 모든 공식을 증명해보고, 어려운 문제는 해설지의 한줄 한줄의 의미를 이해하며 똑같이 적어보며 공부하길 추천한다. 대표 유형을 풀어내는 시간과 최고난도 문항을 고민하는 시간의 비율을 7대 3정도로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한다. 최상위권으로 앞서나가고 싶다고 선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성적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중위권 수준의 학생 : 내신 상위 30~60%의 학생

“수업 들은 것을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복습해야 내 것이 된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의 숙제 정도만 겨우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만 들을 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이 많다. 이 집단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내가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성적은 오를거야’라고 과신하거나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서 해도 남들처럼 성적이 안나와’라고 수학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이다. 사실 첫 번째 경우의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경우의 학생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좌절하게 되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고등학교 첫 시험의 성적이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1학기 시험에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중위권 학생의 대부분이 개념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스스로는 ‘응용문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서툴다’거나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량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의 공부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권의 교재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교과서와 개념서, 쉬운 유형별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여 단원별 대표 유형들만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극적인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2개월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복습에 투자하고, 1개월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1회독, 혹은 앞 3단원(1학기 과정)의 2회독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4) 하위권 수준의 학생 : 내신 상위 60% 이하의 학생

“헛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다면 반드시 역전 찬스는 온다.”

기본적으로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대부분이 ‘수포자’가 된다. 우선 자신의 하루, 일주일, 일달을 되돌아보며 생활패턴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허비하는 시간들을 확인하고,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기 위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30분씩 4회 앉아 있기’와 같이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며 중학교 수학의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필요하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을 정리하는데 두 달의 시간을 투자하고, 남은 한 달의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앞 3단원(1학기 과정)을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한다.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자세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절반의 성공! 1학기 과정을 살펴보고 갔다면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테니 그때부터 다시 한번 도약하면 된다.



라. 바르게 수학 공부하기

1) 기초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인 것이다. 기초가 없이 요령만 익혀서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법.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다항식의 연산을 충분히 연습하고, 복잡한 식의 계산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많이 다뤄보는 것이 좋다.

2)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계산이지만,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넣어 계산하는 예제를 맞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개념서나 교과서를 정독하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개념과 개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단원명을 술술 적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단원명을 적지 못한다. 빈 노트에 한 단원의 세부 개념들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며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하겠어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문제는 못 풀겠어요.'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식'을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공식 ≠ 개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념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고,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 즉 '증명 과정'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한줄 한줄 적어가며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되고,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의 응용문제라고 해봐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라보고, 해설지의 '정답만 보며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4) 알고 있는 개념을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혹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면 이해하지 못한 채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된다. '설명하기'는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게 해준다.

풀어내는 문제의 양에 목표를 두지 말고,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하기를 바란다. 빠르게 진도를 빼는 것에 급급하거나 여러 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교재를 선정하고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몇 번이고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공부법이다.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어 혼란스러워 하는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공부해야 하는 단원, 과목이 바뀐다고 해도 본질적인 공부법은 바뀌지 않는다. 겉데기만 바뀌었을 뿐, 알맹이는 그대로니 스스로를 믿고, 바르게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이상 수학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6.3. 영어

가. 절대평가 영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쉽게 출제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을 믿고 영어 공부보다 수학, 국어 공부의 비중을 높이는 학생들도 있다.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더 쉬운 시험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1)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어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체계이다. 하지만, 시험의 난도가 1등급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90점을 넘으면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이 어려워지면 90점을 받기 어려워진다. 절대평가 관련 교육부의 공식보도 자료에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단순히 쉽게 출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명심하자. 기존의 상대평가는 전체의 4%가 1등급을 받는다면, 절대평가에서는 7~10% 정도가 영어 1등급을 받고 있다. 결국 100명 중 10명 안에 드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영어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등급별로 얼마나 점수가 깎이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자신의 현재 등급을 확인하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2) 수능 영어 ‘절대평가’ 대비방법

결코 쉽지않은 절대평가가 수능 영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영어의 기초는 어휘, 문법, 구문(문장해석)이다. 일단 어휘와 구문의 기본실력을 기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어는 단순 암기보다는 어원이나 맥락 있는 예문을 통해 익히고, 품사에 따른 형태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 긴 지문의 독해 이전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 문장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7~10문장으로 구성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어휘력과 구문실력을 충분히 다진 후에 EBS 연계교재 학습을 시작하자. 수능에 70% 이상 출제되는 EBS 연계교재 속의 지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능특강, 수능완성으로 대표되는 EBS 독해 교재들을 적극 이용하면, 영어 실력을 쌓고, 수능 영어에 대한 적응 능력도 기를 수 있다.

한편, 절대평가가 수능 영어에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영어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각 학교의 내신문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고, 지필평가 외에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챙기고, 정규수업 이외의 교내활동(동아리활동, 방과후활동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자.

나. 영어 파트별 학습전략

1) 듣기

듣기는 체감 연계율이 매우 높다! 체감 연계율이란 수능 당일 영어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느껴지는 연계율을 뜻한다. 듣기의 경우, EBS 연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EBS 교재를 기본으로 출발하자. 여러



권의 교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연계교재의 듣기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은 스크립트를 확인해보고, 몰랐던 표현들은 듣고, 쓰고, 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듣기는 습관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분이라도 매일 듣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등하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과 같은 자투리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는 만큼 들린다!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번 들어 귀에 익숙한 팝송도 멜로디만 기억할 뿐, 끝내 가사는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익힌 구어적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두고 틈틈이 읽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The More You Speak, The More You Hear! 스크립트를 보고 읽으면 아는데, 귀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 했다면, 이는 단어의 발음, 연음 현상, 혹은 억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스크립트와 비교하며 확인한 뒤에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된다. 내 입으로 제대로 된 발음과 억양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귀에 들린다.

2) 어휘

어휘력은 필수!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틈틈이 어휘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짧게 여러 번 반복! 전날 공부했던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 단어를 오래 붙들고 있기 보다는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단어와 마주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시간 등 틈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서 눈으로 익히고 또 익히자. 쉽게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만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다음에 볼 때에는 그 단어들만 보고 또 넘어가는 식으로 무한 반복한다. 수첩에 손때가 묻어 갈수록 독해에도 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어휘 학습 방법을 선택하라! 어휘집을 활용한 공부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데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어휘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문맥 속 어휘의 쓰임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문 속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는 경우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를 공부하기는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어휘집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속도감 있게 어휘를 학습해 나가며 자신이 공부했던 단어들이 독해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복습해보는 것이 좋고,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문맥 속 어휘를 통한 학습에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이 좋다.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들을 마주쳤을 경우, 바로 사전을 통해 그 뜻을 확인하기 보다는 앞뒤 글의 흐름을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해 본 뒤 단어 뜻을 찾아보자.

3) 문법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수능 영어에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7-8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가 약간씩 어긋나면 단락 전체의 의미가 이상해지고, 결국 지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등장하는 영어 문장들은 길고 복잡하다. 아래와 같은 문장은 문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t's true that before puberty, kids don't gain the same muscle from lifting weights that a teen or adult would, but Dr. Avery Faigenbaum, a noted youth exercise specialist, points to studies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six have benefited from strength training and says that, on average, kids show a 30 to 40 percent strength gain when they start lifting for the first time. [2014 고1 9월 22번]

사춘기가 되기 전, 아이들이 역기 운동을 통해 십대나 성인이 얻을 것과 같은 근육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명한 청소년 운동 전문가인 Dr. Avery Faigenbaum는 여섯 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근력 운동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연구들을 지목하고,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역기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30~40 퍼센트의 근력 향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주어, 진주어, 전치사+관계대명사, 접속사that as 원급 as정도의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 문장 해석에 필요한 기초 문법은 EBS강좌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

4) 구문독해

구문독해는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수능 영어의 지문은 결국 문장이 모여 있는 것이다. 문장해석이 정확하게 된다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문장 해석이 부정확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하면 독해 속도도 빨라진다. 어휘를 꾸준히 공부하고, 기초 문법을 익힌 상태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구문독해 연습의 목표는 최소한의 의식적인 노력만을 기울이고도 자동적으로 문장을 술술 읽어나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동일 구문을 이용한 새로운 문장에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5) 지문독해

독해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말 번역'이 아니다! 각 독해 지문을 통해 기본적 어휘를 익히고 주요 구문을 공부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글의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중심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는지 등을 간략한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도 글의 구조를 읽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연계교재 내의 지문들은 완벽히 학습하라! 연계교재의 지문은 정답을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정확히 읽는 연습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간제한을 두고, 문항 수도 늘려가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 연계교재 내의 독해 지문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 ①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 ② 문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 ③ 핵심 구문을 점검하고 필요한 어휘들도 정리하도록 한다. 이때, 각 지문 마다 글의 내용도 간단히 요약해두고, 주제문은 밑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연계교재의 지문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느낀 체감 난도도 별도로 표시해 두면, 시험이 임박하여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빠르게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문제풀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많은 분량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가나, 연계교재의 문항들을 '정답찾기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단계별 독해법이 익숙해지고 난 뒤에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처음부터 독해 전 문항을 한꺼번에 풀기 보다는 짧게는 4~5문항, 길게는 10문항씩 시간을 재면서 호흡을 점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영어 수준별 학습전략

1) 1~2등급

- 진단 :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튼튼하며 각 유형에 대한 전략과 시간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며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다가는 6월 모의고사 이후 급격히 점수가 휘청거리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안정적인 1등급, 더 나아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만큼,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다 세심한 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 처방 : 3점 빈칸 추론 문제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법성 판단, 문장 삽입, 단락 순서 추론, 요약문 완성 등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집중 공략하여 표준점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 학습전략 :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 설혹 틀리는 문항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꼼꼼히 풀어보며 실제 수능에서 확실한 시간 절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계출제 유형을 예측해보자. 또한, 주요 어휘와 구문을 정리하고 오답 소거의 과정을 점검하는 등의 공부를 통해 실수의 여지도 줄여가도록 한다.
- 시간분배 전략 : 문제는 구간별로 세심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독해의 강약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즉, 쉬운 유형의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여기서 확보된 시간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투자함으로써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2) 3~4등급

- 진단 :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나 기본 어휘 등은 갖추어져 있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해석이 뒤죽박죽 얹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형별 전략을 완전히 숙지하고 연습하지 못한 채 감에 의존해서 시험을 친다가나, 시간조절에 실패하여 시험을 칠 때마다 점수가 들쭉날쭉한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어설픈 수준의 어휘실력과 어법실력을 가지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처방 :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시간단축에 연연하지 말고, 문장 단위에서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구문 독해 훈련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또한, 각 연계교재의 해설지에 수록된 주요 구문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을 한다.
- 학습전략(어휘) : 어휘의 부족은 지문을 읽을 때 부정확한 추론을 하게하여 오답률을 높이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반드시 하루에 30~50개의 어휘를 외우고, 주요 어휘들은 예문을

통해 문맥상 쓰임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전략(독해) : 정해진 문제수를 규칙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식의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 각 유형별 접근전략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정답을 놓친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오답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은 없었는지, 해석은 정확했지만 글의 논리 전개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학습전략(듣기) : 듣기 문항을 모두 맞지 못한다면 1, 2등급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듣기 모의고사 1회 분량은 반드시 풀고,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듣는 습관을 갖는다. 또한, 어려운 문항의 경우 받아쓰기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재생하여 들어본다.

3) 5~9등급

- 진단 :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마음만 초조하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멀리 바라보며 공부해야 한다. 나의 최고 성적은 수능 성적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자. 반드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이다.
- 처방 : 이 교재, 저 교재 기웃거리거나 연계교재 출시 시기에 조급해하기 보다는, 1~2개월 정도는 기본개념을 확실히 다지는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연계교재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며 유형별 학습, 영역별 고득점 전략, 지문 분석 및 주요 구문까지 차근차근 공부해간다면 연계문제뿐 아니라 비연계문제까지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전략(어휘) : 영어 공부의 출발점으로 어휘 학습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실제 5등급 이하 수험생들의 경우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휘력 보강만으로도 상당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어휘 공부는 질보다는 양이다. 어제 외운 단어가 오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같은 단어를 최소한 10번은 다시 보겠다는 각오로 매일 일정 분량을 꾸준히 암기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학습법을 실천한다.
- 학습전략(독해) :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겠다는 생각으로 독해에 접근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기본기가 약한 상태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연계교재의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지레 지치기 쉽다. 따라서 처음에는 지문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주제문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해보겠다.'는 목표로 독해공부를 시작하여 점차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성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학습전략(듣기) : 듣기 유형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성적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해보다는 듣기가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EBS 연계교재 듣기의 음성파일을 등하교시간과 일과시간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습관화하고 모르는 표현을 노트에 정리하며 듣기 스크립트도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한다.

라. 바르게 영어 공부하기

따로 또 같이! 연계교재를 교재만으로 활용하여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강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연계교재와 강의는 EBSi 연간커리큘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연계교재 학습에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기본개념>이나 <수능개념> 강의를 통해 반드시 보완하도록 한다.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선택 이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교재를 다루는 강의라 할지라도 강좌별, 강사별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강의를 선택할 것인가는 반드시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주변의 이런저런 어설픈 조언에 휩쓸려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시간이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배울 學만큼이나 익힐 習도 중요하다! 드라마를 시청하듯 가만히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극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예습을 통해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문장이 앞의 주제문과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지?', '이 단어가 이 글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이 문장은 정확히 어떤 의미지?'와 같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또한,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복습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집중하여 강의를 들어라! 온라인 학습은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는 끝까지 지속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를 듣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검색창 등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강 후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과제를 규칙적으로 올린다거나, 선생님과 유대를 쌓아가는 것도 끝까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Know-Where! 이제는 know-how만큼이나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know-where가 중요하다. EBSi 사이트를 수험 생활을 함께해 줄 길잡이로 삼아보자.

6.4.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한국사 수능 안 치고 중간에 집에 가버리면 성적표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무조건 응시해야 하는 과목이란 뜻이다. 또한 절대평가이다. 절대평가인 과목이 영어가 하나 더 있으나 난도만 비교하자면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한국사는 쉽다.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필수 응시! 절대평가! 쉽다!'이다. 이 특징을 오해했을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선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필수 한국사

먼저, 한국사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 변별을 위해 고난도 문항을 일부 출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문항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한다. (2017 대수능 한국사 필수에 따른 출제 방향 공개, 교육부, 2014.4.11.) 이 말인 즉,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말이며, 또한 학교 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이다.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 영역은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30분이다.

나. 절대평가 한국사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영역(과목)과는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의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1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9개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아래와 같다. 즉 40점 넘으면 다 1등급이란 뜻이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는 오로지 등급만 나온다.

등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50점 ~ 40점 이상	40점 미만 ~ 35점 이상	35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미만 ~ 25점 이상	25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0점

다. 응시는 무조건

수능 필수 한국사 시험은 다른 과목과 달리 유일하게 전원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을 응시해서 결과를 받아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국사를 응시해야 한다. 영역별로 선택/미선택에 따라 응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사는 무조건 응시해야 한다.

라. 수능 한국사 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 ▶ 필수응시과목, 절대평가
- ▶ 총 20문항(2점 10개, 3점 10개), 50점 만점
 - 1등급 40점 이상 / 2등급 35점 이상 / 3등급 30점 이상 / 4등급 25점 이상
- ▶ 단원 분배(총 20문항)
 - 전근대 10문항(선사시대 1문항 / 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2문항 / 고려 3문항 / 조선 4문항)
 - 근현대 10문항(개항기 3~4문항 / 일제강점기 3~4문항 / 현대사 3문항)

- 1) 한국사 1번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개념을 모르면 틀린다.
- 2) 선지의 격이 있다.
- 3) 정치, 사회, 경제, 문화사가 골고루 나온다. 나왔던 주제를 배제하지 않고 핵심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 4) 전근대 10문항, 근현대 10문항 총 20문항이 같은 비율로 출제된다. 선사시대 1문항, 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2문항, 고려 3문항, 조선 4문항, 개항기 3~4문항, 일제강점기 3~4문항, 현대사 3문항

마. 한국사 학습전략

필수과목, 절대평가로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국사 영역은 준비 전략과 학습방법이 다른 과목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사는 같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와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이 다르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한국사를 절대평가, 한국인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정도로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한국사를 감으로 풀거나 제대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보면 안 된다.

앞으로의 수능 한국사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다면 쉬운 한국사가 아닌 어려운 한국사가 된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수능 한국사 문제는 여전히 쉽다. 정부 정책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사가 쉬우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의외로 많았다.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다. 그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제 수준을 올려주니까 맥없이 당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수시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대학 입시에 실패한 사례도 많이 나왔다. 분명한 것은 올해 수능 한국사도 쉽다는 것이다. 다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쉬운 한국사가 어려운 한국사로 느껴질 것이다. 제발 한번은 제대로 공부하자.

바. 바르게 한국사 공부하기

1) 내신 한국사만이라도 제대로 한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내신 한국사는 수능처럼 쉽지 않다. 아이러니 하지만 한국사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고1 때 혹은 고2,3 때 언제든지 학교에서 하는 한국사 수업을 제대로 듣고, 내신 시험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온 친구들이 고3 때 한국사로 인해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수업을 잘 듣고 내신 한국사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 고3 때 와서도 그 기억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는 이렇게 준비하자.

우선 주요 개념을 알고, 흐름을 익혀야 한다. 아주 상세한 사실까지 암기하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해당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어느 시대에 나오는지 알면 된다. 또한 그 개념과 개념이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자. 이걸 ‘흐름’이라고 한다. 역사는 시간의 기록을 모은 것이기에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요 개념과 흐름만 잡고 있다면 한국사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념과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BSi 사이트에 들어오면 <수능개념> 한국사 강좌가 열려있다. 제대로 한번은 공부하자고 했을 때 그 목표가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수능개념 한국사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한 번만 집중해서 완강을 해 주기를 바란다. 완강을 한 다음에는 배웠던 개념과 흐름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가끔 시간을 내어 복습해 주기를 바란다.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한국사 교재를 채택하여 공부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연계교재를 풀어보면서 수능 한국사 연계출제를 대비하면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출제자들이 묻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밝히며 묻고 있다.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또 출제한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 생활상은 반드시 1문항 출제되며, 고대사에서 2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원과 내용이 거의 정리되어 있다. 고려시대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그리고 조선시대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영조, 정조 등은 매 모의고사와 그해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하였다. 또한 현대사의 통일 관련 문항이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역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또한 기출문제도 올해와 전년도 것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6.5. 사회탐구

예비 고3인 고1,2 학생들에게 사회탐구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내신 대비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평소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다. 각별히 어떤 사회탐구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본 고1,2 학생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고3이 되고 막상 사회탐구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과목의 비중이 커지고, 상위권 수험생들의 탐구과목 학습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험생들조차 탐구영역은 여름방학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왔다. 하지만 탐구영역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 만점 1등급을 목표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면서 더이상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만만한 과목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와 달리 사회탐구영역은 1등급을 목표로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준비 과정 없이 주먹구구로 개념 요약을 읽고, 문제풀이만 하는 겉핥기식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사회탐구는 주요 과목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노력한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고3, 새로운 과목을 접하는 시점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개념을 완성하고, 단순한 암기나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실전 연습을 진행한다면 고득점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만, 고3 수험생활은 변수가 많고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며 입시 일정 소화 등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2 2학기 내신 시험이 끝나고 바로 본격적인 사회탐구 개념공부에 돌입해야 한다.

가. 사회탐구 과목 선택 전략

사회탐구 9개 과목은 대입 응시인원, 난도가 상이하므로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도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난도나 표준점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목별 체감 난도나 표준점수는 그해 수험생 분포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준점수가 과목 선택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많은 대학들이 과목별 유불리가 나타나는 표준점수보다는 탐구과목에 한해 변환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자신의 흥미와 내신 과목, 전공 선택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을 토대로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1) 본인의 기호와 잘 맞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라.

대입의 기로에서 나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심사숙고가 따라야 하고 심사숙고는 많은 시간의 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EBS 수능개념 강의 맞보기 강좌 등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수 개념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사가 전반적인 과목의 특징과 목차, 수능의 출제 포인트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수능이라는 앞으로 긴 레이스를 자신과 함께 호흡할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선생님의 선택이 학습의 동기유발 등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선배들이 남긴 수강 후기 등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찾아가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에 있는 주변의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상담을 통해 생생한 과목별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방법도 권장한다.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미있으면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면 잘하게 되기 때문이다. 1학년 공통사회 교과를 배우면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영역이나 다양한 독서, 일상의 뉴



스 수집 등 간접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와 관련 깊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진학을 선호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에서 주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파악하여 관련된 고등학교 사탐 과목을 수능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수험생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 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2) 과목 간 개념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여 시너지를 높여라.

적어도 한 과목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이미 선택한 과목과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학습량을 줄이고 선택 교과 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교과 간 연관성이 높은 사탐 SET는 다음과 같다.

- ①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 생활과 윤리의 고난도 문제가 윤리와 사상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므로 어려운 사상이 주제를 한 번 공부하면 두 과목의 고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② 한국지리·세계지리 : 기후, 지형, 인구, 도시 등 개념 원리가 동일하여 학습량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 ③ 세계사·동아시아사 : 중국사, 일본사 등 동아시아사의 내용이 세계사 내용과 겹치므로 학습량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3) 학교 내신과 수능과목을 일치시키는 효율성에 주목하라.

학교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고3 수업은 수능과 내신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학교 시험도 수능형으로 치러진다. 3학년 때 공부하게 될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개념 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2학년 내신으로 공부한 사탐 과목과 3학년 내신으로 공부할 사탐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학년 내신으로 기본개념을 끝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개념을 복습하고, 3학년 때 공부할 사탐 과목의 개념을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한다.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의 80% 이상은 3학년 3월 학력평가 이전에 사탐 2과목의 개념을 끝낸다는 것을 명심해라. 3학년 내신은 반영 비중이 높으므로 내신 공부와 수능을 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자.

나. 사회탐구 과목별 학습전략

1) 일반사회계열

- ① 수능 출제 포인트! 빈출 주제가 정해져 있다.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는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단위별 출제 문항 수도 거의 정해져 있다. 사회문화를 예로 들면 I~IV단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 I~IV단원은 단위별로 4문제 정도씩 출제되며, V~VI단원에서 각 2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기출문제를 토대로 수능에 출제되는 빈출 주제를 뽑아보면 대략 30개 내외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출 주제는 마인드맵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단원명, 대단원별 중단원명, 중단원별 핵심 개념이라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핵심 개념과 기출문제의 평가요소를 각각 대입하여 단위별 빈출주제 및 주제별 중요도를 수험생이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어려워진 사람, 꾸준한 문제적용 연습이 중요하다.

사회탐구 고득점을 위해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사회탐구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개념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적용 연습이다. 수능 문제는 추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문제 유형을 익히지 않으면 개념은 이해했는데 등급은 정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수년간 수능이 치러지면서 문제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약 3년간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기출 문제를 볼 때는 개념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활용하여 빈출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문제풀이 자체가 아니라 주요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나 표 분석 등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의 표 분석은 IV단원 계층 표 분석으로 문제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으며, 법과 정치는 상속이나 선거제도 등의 문제 형식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능의 출제 경향! 평가원 모의고사에 답이 있다.

당해 수능의 경향, 특히 문제 유형 등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예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의평가는 그 해 수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고난도 문제의 주제는 물론이고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성적이라는 결과보다 문제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매우 새롭게 보이는 문제 유형이라도 반복해서 보고 분석한다면, 수능에서는 더이상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아닌, 등급을 올리는 전략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지리계열

① 개념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나 사회탐구는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한 교과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 또한 개념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 달리, 지리는 개념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항을 풀이해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지리 문항에는 그래프, 도표, 지도 등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문항에 제시되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지리의 경우 꾸준한 복습을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학습한 개념을 이용해 문항에 제시되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를 토대로 출제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여 빈출 주제와 자료를 파악하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인문지리에서 다루는 자원, 공업, 서비스업, 상업, 교통 등과 같은 주제의 경우 문항 출제 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들 주제의 경우 다양한 통계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지역적인 분포의 특성과 차이를 잘 분석해두어야 한다. 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해안 지형의 경우 주로 지형도를 통해 출제된다. 해안 지형의 각 지형을 개념 따로, 지형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각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개념과 자료를 함께 연결하여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들어 모의평가나 수능에 출제되는 지리 문항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백지도 관련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지역, 주제들에 대한 개념 학습이 꼼꼼히 이루어지더라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문항을 풀이할 수 없다. 평상시 지도를 가까이하면서 자주 보고, 다양한 지리 정보를 찾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백지도 문제에 보다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백지도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학습 시 지도를 옆에 두고 학습과정에서 언급되는 지역들을 지도에 직접 표시한 후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인 특색이 지도에 담기게 될 것이며, 이는 백지도 관련 문제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지도가 될 것이다.

② 출제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출제된다.

지리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기본적인 학습량은 분명 많은 편이다. 그런데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 해당 주제들이 비슷한 유형, 비슷한 선지들로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기출 선지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용어, 서술어 하나하나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는 달리, 지리는 학습한 개념 그대로 출제된다. 따라서 지리의 경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과목이며 반복적인 복습을 통해 꼼꼼하게 개념을 정리해 둔다면, 다른 영역 학습으로 인해 잠시 학습에 소홀하더라도 그 성적이 꾸준히 유지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리의 경우 개념학습과 더불어 기출유형 및 선지분석을 통해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의 주요 출제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리 과목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다. 적어도 최근 3개년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나온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출제 문제들을 정리하고 주제별 출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 이미 기출로 출제되었던 선지들을 정리해두는 것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지리에서 기후의 지역 차, 자원, 주요 공업의 분포, 인구는 1등급을 결정짓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주제이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이므로, 어떤 주제들보다 꼼꼼한 정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지리의 경우에는 세계 기후 지역, 기후의 지역 차, 기후 단원과 지형 단원의 연계문항, 에너지 및 식량자원, 인구 등이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계지리의 경우 지형과 기후가 그 자체로도 어려운데다, 지형과 기후를 토대로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양식 차이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지리의 중요성이 아주 높다.

③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높다.

지리는 자료분석을 통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들의 출제 빈도가 높다. 모든 문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특히 자료의 중요성이 높은 과목이다. 따라서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문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빈도가 꽤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높은 과목이다. 특히 글 자료에 비해 지도나 그래프가 연계될 경우 연계교재로 공부했다면 매우 쉽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리 과목의 연계 체감률은 높은 편이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연계교재 중 어떤 자료와 문항이 연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하자. 지리 과목은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 꼼꼼한 연계교재 학습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교재를 단순히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다양한 문항과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변형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3) 윤리계열

① 윤리계열 과목의 공통점에 주목하라.

윤리계열 과목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두 과목 모두 윤리 사상가의 이론을 토대

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특히 윤리와 사상에서 등장하는 사상가의 일부가 생활과 윤리에서 중복되어 출제된다. 예를 들어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는 유교, 불교, 도가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실존주의, 배려윤리, 롤스는 생활과 윤리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는 경우 생활과 윤리를 함께 수능과목으로 선택하여, 공통점에 주목하면 공부의 양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점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사상가의 이론을 제대로 주목하여 함정을 벗어나라.

기본적으로 윤리 과목은 사상가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와 사상은 사가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사상가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핵심 사상가의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한 사상가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조건 키워드를 암기한 이후 단순히 문제에 적용하면 수능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명(天命)’과 ‘인(仁)’이라는 단어를 유교의 키워드라고 외운 후 제시문에서 천명과 인을 보고 무조건 유교라고 생각해서 문항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에서 천명이 단순한 자연의 명령으로 서술될 수도 있으나 인이라는 단어가 인위적인 규범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비판하는 제시문의 형태로 나온다면, 그 제시문은 유교가 아니라 도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상가의 이론을 이해할 때에는 그 사상,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③ 윤리와 사상 만점 공부법

윤리와 사상은 1단원에서 주로 윤리 이론과 사회사상의 기본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2단원부터 시작된다. 1단원은 윤리와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단원이며, 2단원부터 수능의 빈출주제에 해당하는 사상가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윤리와 사상의 만점을 위해서는 2단원부터 등장하는 사상가를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개념을 사상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윤리와 사상은 크게 동양사상, 한국사상, 서양사상, 사회사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단 4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하며, 동양사상과 한국사상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가로 다시 나누어서 정리한다. 서양사상은 시기별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서 정리하며 사회사상은 자주 출제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의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보다 깔끔하게 자신의 개념 노트를 완성할 수 있다.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와 사상은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빈출주제가 정해져 있다. 처음 공부할 때에는 사상가의 단어와 개념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의 문항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빈출되는 패턴을 파악하면 쉽게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기론(理氣論),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실천이성은 생소한 개념에 해당하지만 수능에 항상 출제되는 성리학의 양명학의 비교문제, 이항과 이이의 사단칠정론문제, 칸트사상의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빈출 유형을 파악하면 생소한 개념을 극복하고 보다 쉽게 만점에 다다를 수 있다.

④ 생활과 윤리 만점 공부법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에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출제된 제시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생활과 윤리는 선택자 수도 많고 만점 비율도 높은 과목이다. 또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과목이다.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시작은 윤리와 사상과 마찬가지로 사상가들의 이론과, 생활과 윤리에서 등장하는 논쟁거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과 윤리는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과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 윤리를 공부한 이후 기업가는 이윤추구만 하는 입장과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적



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제된 문항에서는 기업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사회에 해를 가하는 이윤추구를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과 윤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궁극적으로 화자가 이야기하는 바를 찾아내는 훈련이 중요하다. 실제 아퀴나스의 정의전쟁론이 대수능에서 출제 되었을 때에도 처음 출제된 문항이었지만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⑤ 평가원의 문항 패턴에 주목하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라.

평가원에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가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면 기본적인 패턴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선지로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선지의 내용이 제시문에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출제되는 내용은 제시문에 정답이 존재한다. 생활과 윤리를 예로 들어보면 롤스와 싱어가 해외원조를 주장할 때 절대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두 사상이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을 선지로 출제하고 그 다음에는 문항의 제시문에 넣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EBS 연계교재의 자료에서 출제되는 패턴이 있다. 생활과 윤리와 사상 모두 EBS 연계교재의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항을 보고 단순히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①번부터 ⑤번의 선지 중 처음 등장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EBS 연계교재에 등장하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기출문제 분석과 자료 분석은 수험생 혼자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EBS 강의들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만점에 다다를 수 있다.

4) 역사계열

① 역사 과목 선택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원이 무조건 봐야 하는 과목이 바로 '한국사'이다. 모두가 필수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사 지식을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습득한 상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능 한국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사를 한 번 이상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에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역사계열 선택과목인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3개의 역사를 다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유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얘기한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범주와 범위는 모두 다르지만, 학습법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관계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걸어온 역사를 배우는 동아시아사의 경우 한국사에서 이미 학습한 개념으로 뼈대를 잡아가며 흐름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개념을 잡아갈 수 있고, 세계사를 배운 학생의 경우 중국사, 일본사의 각 국사 내용이 정리된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관계사와 주제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학업 부담은 물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반대로 동아시아사를 내신 과목이나 수능 선택과목으로 정해서 학습을 한 경우 역시 세계사의 중국사, 일본사, 동아시아사,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과 민족운동 등 겹치는 내용이 상당량 있어 학습해 나갈 때 한 번에 정리해 버릴 수 있다.

다만 역사계열 과목의 특성상 가장 먼저, '내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재미있었는가?, 역사 과목을 좋아하는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역사계열의 경우 학습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3학년 내신 과목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있는지 혹은 2학년 내신 과목으로 이미 한 번은 배운 적이 있는지는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 역사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면 올 겨울 방학에 한 번은 역사 과목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선택과목을 정해야 한다.

② 역사 선택과목 특징

역사 과목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정확하다! 알면 무조건 맞추고 그 개념을 모르면 무조건 틀린다. 그래

서 역사 선택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역사는 요행이나 해석의 차이가 없다. 역사는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한 번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할 때 양이 적지 않으나, 한 번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한다면 한만큼 무조건 점수는 나온다. 어렵게 출제되거나 쉽게 출제되거나, 관계없이 개념을 알고 연대기를 제대로 안다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보통 20개 이하의 강(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한 강에서 1문항씩 골고루 출제된다. 역사과의 특성상 한국사처럼 단원별 분배가 명확하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해당 단원 핵심 개념은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 국가의 성립에서 진, 한, 고조선, 남비엣 중 1개 국가, 중국의 인구 이동, 책봉과 조공 관계, 거란, 여진 등 유목 민족의 성장, 과거제, 성리학 등 나오는 개념이 명확하다.

③ 동아시아사, 세계사 만점 공부법

이 두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은 학습법이 된다. 개념, 흐름,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면 학습자 스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개념이다. 무조건 개념이다. 확실히 역사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1등급 고득점을 위해서는 연대기(연표)를 꼼꼼하게 정리하자. 최근에 1등급 변별을 위해 연대기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사이 시기를 묻는 경우도 꽤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몇 덩어리(시기)로 나누고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제 중심의 역사다. 즉 일국사로 출제되지 않고 주제사, 관계사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에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중 한 사례를 주고 해당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상을 묻는 문항의 비중이 높다. 또한 1등급 변별을 위한 이른바, 킬러 문제로 연표(연대기)를 꼼꼼히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를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단 큰 흐름 안에서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익힌 뒤 반드시 연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사는 학습요소가 동아시아사에 비해 많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은 4종의 교과서(미래엔, 금성, 천재교육, 비상) 모두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페이지가 많이 줄었고, 아프리카사나 라틴아메리카사 등이 대폭 축소되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부담은 적어졌다. 세계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1회독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한다. 세계사는 세계지리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범위와 양이 많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한 번만 확실하게 개념을 돌려놓고 나면 역시 정직하게 점수가 착착 쌓아갈 수 있는 과목이다. 4종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요소를 <수능특강>, <수능완성>인 연계교재 및 교과서를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한 바퀴 돌린 이후에는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1등급 변별을 위한 킬러 문항으로 어려운 문항, 낯선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능특강을 기준으로 모든 강을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볼 것을 당부한다. 따라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는 교과서와 수능 연계교재에 있는 개념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복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킬러 문항으로 연도 문제, 사이 시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는 꼼꼼하게 시기도 챙겨보자.

④ 어려워진 사탐, 꾸준한 문제적용 연습이 중요하다.

사회탐구 고득점을 위해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사회탐구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개념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적용 연습이다. 수능 문제는 추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문제 유형을 익히지 않으면 개념은 이



해했는데 등급은 정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수년간 수능이 치러지면서 문제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약 3년간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기출 문제를 볼 때는 개념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활용하여 빈출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문제풀이 자체가 아니라 주요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나 표 분석 등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수능의 출제 경향! 평가원 모의고사에 답이 있다.

당해 수능의 경향, 특히 문제 유형 등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예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난도 문제의 주제는 물론이고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성적이라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문제와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새롭게 보이는 문제 유형이라도 반복해서 보고 분석한다면, 수능에서는 더 이상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아닌, 등급을 올리는 전략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6.6. 과학탐구

2022학년도부터는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탐구과목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과학,II) 중에서 구분 없이 택2를 하도록 대입제도가 개편되었으나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과학 두 과목 선택을 필수로 지정하는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대입제도 개편이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기는 하지만 탐구과목을 선택하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별 공부 방법 등은 기존의 입시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탐구과목을 선택할 때는 과목별 수능 응시자 수나 출제 난도 등에 따라 수험생에게 유·불리함도 생기므로 과목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 깊이 있게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해 기반 학습을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진 과목의 경우 수험생활을 해나가면서 끈기를 가지고 등급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과학탐구 과목 선택 전략

1) 상대적으로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라.

주요 대학의 경우 탐구 성적 반영 시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각 대학마다 변환 표준점수를 계산해 각 과목별 난도에 따른 유·불리를 조정한다. 결국 변환 표준점수의 기준이 되는 백분위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많을수록 등급 확보가 유리하다. 아무리 본인에게 잘 맞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응시인원이 적을 경우 높은 백분위 점수를 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점수 확보가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다.

2)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잘할 수 있는)과목을 선택하라.

암기할 내용이 비교적 많은 탐구과목의 특성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점수 상승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성향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장 자신있게 학습하는 과목,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3)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3학년에 올라가면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기에는 시간 소비가 많기때문에 학교에 개설된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중간·기말고사 공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개념을 확립한 다음, 수능에 맞춰 변형, 심화학습으로 최종 정리까지 완성한 다면 수능과 내신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을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까지 고려하자.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탐구 반영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희망하려는 학과에서 필수·선택과목이 지정된 경우가 있는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 있는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나 면접 등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여 관련성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과학탐구 과목별 학습전략

1) 물리

이공계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모든 과학의 기본이 물리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모든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 물리학’을 전공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물리학이 모든 이공계열 과목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리학은 어렵다는 주위의 평가로 인해 학생들은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지레 물리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물리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물리학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학은 어렵다는 주변의 염려, 물리학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만 할 수 있다는 편견, 그리고 물리학은 학습량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다는 선입견들로 인해 내신 및 수능에서 물리학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학의 전반적인 학습방법을 소개한 후 대단원을 중심으로 물리학의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다 적합한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물리학의 학습방법

- 물리학은 개념의 사용이 엄격하다. 교재 그대로의 개념의 정의를 사용하라.

물리 교재에는 많은 개념들(혹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개념 중에서는 ‘충격량’과 같이 생소한 개념들도 있지만 ‘속도와 속력’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도 다수 존재한다. 물리를 잘하려면 이러한 물리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지 마라.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라. 그러나 이해한 후에는 암기하라.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 과목은 공식을 외운 후에 공식을 문제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외운 공식을 그대로 문제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것을 묻는 문항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 통할 수는 있으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심화 문제의 경우에는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여 적용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포기하게 된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식은 항상 개념과 함께해야 그 의미를 갖게 된다. 물리학의 경우 내신 및 수능에서 공식만을 외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문항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공식을 이해한 후에는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이해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 공식을 이해한 후에 암기하듯 문제 풀이 과정도 이해한 후에는 암기하라.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한 개념과 공식을 문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념과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아무리 개념과 공식을 잘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개념과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개념과 공식을 문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적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처음에는 물리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대로 모방하여 암기하고, 전문가들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온다. 반복연습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공식만을 추출하여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단,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고 곧바로 책장을 덮게 되면 그 문제풀이 과정은 머리에서 곧 휘발된다. 정답을 맞혔더라도 반드시 풀이과정을 음미하고, 주기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반복하여 기억이 유지되도록 하라.

- 기억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짧게 자주 주기적으로 반복하라.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반복 주기는 4회에서 5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인간의 기억은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1개월이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80% 가량이 망각된다고 한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학습한 내용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잊혀질만할 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반복이란? 첫 번째 복습은 수업 혹은 강의 끝나고 가볍게 한 번(이미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이 머리에 남아 있기 때문), 두 번째 복습은 자기 전에 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적당히 한 번, 세 번째 복습은 주말에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학습하고, 마지막 네 번째 복습은 한 달 후 그동안 학습한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기간을 두고 여러 번 푸는 것이 좋다. 기억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적어도 4회 혹은 5회의 반복 후에 정착되고 지속된다.

② 대단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 학습 전략

- 대단원Ⅰ. 역학과 에너지

대단원Ⅰ에서는 물리학에서 기본 개념인 운동과 힘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개념들인 만큼 경험에 의한 잘못된 개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재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개념의 정의를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 개념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비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구분 또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역학 단원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문 영역인 만큼 문항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 기본 문항에서 난도가 높은 문항까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또한 개념과 함께 공식을 사용한 정량적 계산문제들이 출제되는 단원인 만큼 학생들의 부담 또한 큰 것은 사실이다. 정량적 계산 문제들은 다양한 문제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식을 사용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문항들끼리 묶어서 비슷한 유형에 맞는 문제 풀이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유의할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 풀이 또한 풀이 과정을 이해한 후에는 풀이 과정을 통째로 암기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오래도록 기억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 대단원Ⅱ. 물질과 전자기장

이 단원은 크게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전기 소자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와 반도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전기와 자기에 대

한 내용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과 전자기 유도 현상이 핵심 주제이다. 대단원 II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 낯선 개념들이 등장하여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반복과 연습에 의해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대단원 I보다 수월하다.

대단원 II에서 정량적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 정도로 그 외 부분은 개념적인 문항을 주로 묻고 있는 만큼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또한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 영역에서 묻는 정량적 계산 문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 혹은 EBS 교재를 이용하여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단원 III, 파동과 정보 통신

이 단원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소재로 파동에 대한 개념과 파동의 특성 및 현대 물리학 영역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대단원 II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학습 시작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물리학자들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려고 노력하자. 물리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낯선 개념들과 낯선 사고체계로 인해 생소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생소함은 여러 번의 반복과 연습으로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단원 I의 역학 문항처럼 고난도의 정량적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및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문제가 출제되므로 개념과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문제 풀이 경험을 통해 보다 개념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성취할 수 있다.

2) 화학

화학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II에 포함된 화학 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게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화학II의 몰농도와 동적 평형, pH파트가 화학에 포함되면서 기존 화학보다 다소 어려워진 감이 있다. 하지만 몇몇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물질의 구성 입자, 화학 결합,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 등과 같은 화학의 기초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화학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수능 화학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바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학I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① 수능을 위한 화학 공부는 <수능개념>으로 시작하자.

이제 내신을 위한 공부뿐 아니라 수능을 위한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학교 정규수업은 내신을 치르기 위한 압축된 개념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보다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문제를 위주로 다루게 된다. 즉 수능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형 화학만 공부해본 친구라면, 수능을 위한 개념과 문제와 개념을 연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수능개념 강의로 첫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능 화학I의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 진정한 화학 고득점을 받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②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학습하자.

'화학은 개념이 중요하므로 개념을 먼저 공부하라.'라고 하면 무작정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화학의 개념은 암기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해를 해야한다. 이해가 동반되



지 않는 단순 암기로는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 문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념학습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수능에서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엽적인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해설서나 평가원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 개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념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개념서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즉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및 과정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목표이므로 개념서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한 후에는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익힘으로써 실전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③ 연계교재 및 평가원 기출문항을 통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라.

개념학습을 한 후에는 그 개념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원 기출문제는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따른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1차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학습한 개념 중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교육과정 속의 개념이 어떻게 자료화되어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기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실려 있다. 심지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수능까지도 기출에 있었던 자료를 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하므로, 기출문제만 꼼꼼히 분석하고 풀어보기만 해도 수능 공부의 2/3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단원별로 어떤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고난도 문항은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어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또한 최신 출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들 유형별로 문제들을 접하며 문제풀이의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든지 자연스럽게 풀이 방법이 연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취약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 군데 모아 정리하고 수시로 반복해서 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산화 환원 양적 관계 문제에 취약하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주려서 그 풀이의 흐름을 자신의 사고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체화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④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길러 응용력을 향상시키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해석 및 분석하는 문항과 실험, 탐구활동의 과정에 대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료 해석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학습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실험이나 탐구 자료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의 자료와 실험, 탐구 내용에 대해서 단원별로 정리하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자료나 실험, 탐구 과정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⑤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단권화 노트는 처음에 개념학습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에 단원별로 수능에서 다루지는 중요한 개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리한다. 이후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특히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나 틀린 문제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정리해 놓는다면 수능 바로 직전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념을 줄줄이 노트에 적는 행위는 의미가 없고, 개념의 단권화가 아닌 단원별로 문제 풀이법, 개념의 적용법을 적은 자기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풀이법을 알게 되었다면 수험생들은 그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고,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권화 노트 작성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단권화 노트 작성 Tip]

1. 헛갈리는 개념, 단순 암기
 - 헛갈리는 개념, 자주 틀린 개념, 필요한 공식 등을 우선순위를 정해 적는다.
2. 6월, 9월 모의평가 오답 + 연계 문항 오답 + 자주 틀린 오답
 -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부터, 왜 틀렸는지 그 이유와 올바른 개념, 해설 등을 정리한다.
 - ☆ 이때, 정답과 해설은 문항과는 다른 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 암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3. 연계 문항
 - 주요 선지, 자료 등을 정리한다.
 - 탐구영역은 자료에 대한 연계 체감율이 높은 영역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빈출 유형
 - 빈출 유형의 개념, 자료 등을 해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 화학1의 킬러문항은 빈출 주제 및 단원별 출제 문항 수도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풀이의 흐름을 자기에게 맞는 순서로 정리해두도록 한다.

이러한 단권화 노트를 작성한다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3) 생명과학

① 개념은 꼼꼼하게 다지고 확실하게 암기하라.

과학탐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학습’이다. 이는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요 용어 및 기본 원리에 대한 숙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 단원을 공부할 때 각 단원별 용어나 기본 원리를 훑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암기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한다. 이 때 유의 해야 할 점은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암기를 할 경우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뿐더러 학습에 대한 의욕도 잃을 수 있다.

② 연계교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라.

20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누가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가가 고득점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자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연계교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내 내용영역 및 문제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재 외에 새로운 자료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 자료 역시 교육과정을 벗어날 순 없으므로 연계교재 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뽑아 놓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살펴볼 것은 연계교재 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연계교재에서 어떻



게 문제화되어 출제되어 있는지, 해당 문제 자료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묻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모의평가에선 연계교재의 어떤 자료나 문항이 어떻게 실전 문제에 변형되어 출제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③ 양질의 문제로 실전에 대비하라.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연계교재 수업을 통해 자료 분석 연습을 하였다면 이젠 양질의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 유형에 맞는 양질의 문제들을 선택하는 것과 시간 부족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일단 양질의 문제란 그 해 발행되는 연계교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평가원 기출문제라 보면 된다. 평가원 기출문제는 수능 출제 기관이 출제했다는 점에서, 연계교재는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로 그해 수능에 70% 연계 출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능한 평가원 기출문제는 시기에 따라 문제풀이 형식을 달리해 주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는 단원별로 나눠서 풀어보고, 다시 풀어 볼 때는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 회차별로 풀어보도록 연습한다.

④ 계산문제는 꾸준히 반복하라.

생명과학과 II의 고난도 문제는 개념에 대한 높은 이해보다는 빠른 수리적 계산 능력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계산형 문제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익숙해진다. 변별력이 높은 계산 문제인 만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기출 문제와 연계교재 문제를 수능을 보는 그 날 까지 덤덤한 마음으로 풀고 또 풀어준다면 수능 날에는 분명히 풀릴 것이다.

4) 지구과학

①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

지구과학에서도 개념학습은 절대적이다. 개념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사물에 대한 것들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할 때 ‘현상에 대한 정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특징’ 등을 스토리로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다. 태풍을 예로 들면 태풍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먼저 학습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이 구분되는 이유와 각 지역에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스토리처럼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태풍에 대한 완벽한 학습을 도와준다.

지구과학의 학습에는 개념의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주 반복하며 암기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 방법이다. 꼭 암기해야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어렵거나 개념을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EBS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수능 연계교재, 평가원 기출문제를 이용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념의 이해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 심화 개념을 활용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자료 분석 능력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 능력까지 갖추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명심할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능 연계교재의 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연습하면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익히고 반복 훈련하면 대비할 수 있다.

③ 자료와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여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지구과학에서는 그림, 도표, 그래프가 주어지는 자료해석 문제가 많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그마의 생성, 지질 연대, 일기도, 수온 염분도, HR도 등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목의 특성상 실제 발생 사례가 많이 활용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대표 사례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어려운 개념뿐만 아니라 쉽다고 생각하는 개념도 꾸준히 반복한다.

지구과학은 다른 과학탐구 과목에 비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물론 어려운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고난도 개념을 다루는 단원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의 완벽한 학습과 적용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하기 수월한 개념들의 꾸준한 복습’이다. 학습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운 개념들을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복습하는 것이 지구과학 학습의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다.

다. 과학탐구영역 수준별 학습전략

1) 상위권

① 문제풀이를 통해 부족한 개념을 확인하라.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자료분석 및 해석, 탐구 설계 및 수행능력 등이 잘 갖추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적응 연습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이 파악되면 바로 개념정리 부분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에 문항을 다시 풀도록 한다.

②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되 스스로 변형해 보라.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2~3개의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일단 기출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항들을 따로 모아 반복하여 꼼꼼하게 풀어본다. 또한 기출문제나 연계교재에 나온 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많이 출제되므로 스스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봄으로써 문제응용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2) 중위권

① 부족한 개념부터 채워라.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분석 및 해석 능력과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이 상위권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한다.

②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하라.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최근 몇 년간의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그 과정을 통해 자주 출제되는 유형과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문제풀이 오류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확실한 개념이해를 토대로 한 바른 문제풀이 능력을 축적해간다.



3) 중하위권

① 개념학습에 집중하라.

최근 과학탐구의 출제 경향을 보면 쉬운 단원과 어려운 단원이 확실히 구분되어 출제되고 있다. 일부 단원을 제외하고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교과 개념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 학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익히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도구를 선택하라.

간혹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와 문제풀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여 완벽하게 학습하도록 한다. 교재 구입 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좋으나, 남들이 구입한 교재를 무턱대고 선택하지는 말자. 교재에서 다룬 내용, 문항 유형 및 풀이방법 등을 암기할 정도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기본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VII

EBS

고교강의 활용법

EBS 고교강의 활용법

7.1. 예비 고3(고1·2)을 위한 필수 강좌

가. 예비 고3을 위한 수능 커리큘럼의 시작 <수능개념>

예비 고3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수능개념을 시작하도록 하자. 대표강사들이 직접 집필한 강의노트와 함께 하는 <수능개념>은 수능 연계 시리즈로 이어지는 EBS 수능 커리큘럼의 시작이다. 특히 문제풀이 유형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앞서 개념 정리와 중요한 핵심을 들을 수 있다.



나. 예비 고3을 초보자를 위한 개념 강좌 <왕기초 개념탐구>

공부의 기본은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예비 고3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왕기초 개념탐구>를 통해 오개념을 바로 잡고 원리에 기본을 둔 강의로 개념학습에 실전 대비까지 해보자.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과 고교 개념을 연계해서 알기 쉽게 하고, 필수 개념 요소들만 뽑아 기본 개념을 단기간에 완성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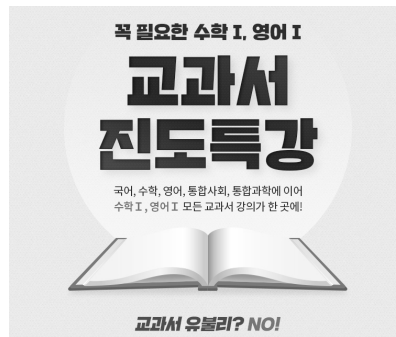


다. 주요 과목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EBS 대표 기본개념서 <올림포스>

내신과 수능을 위한 기본개념 정리부터 다양한 문제 유형 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를 잡고 싶다면 <올림포스>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는 고등학교 ‘공통과목’에도 있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하게 배우는 ‘선택과목’에도 포함되는 중요한 과목이므로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라. 내신을 위한 추천 개념 강좌 <교과서 진도특강>

<교과서 진도특강>은 전 영역의 모든 교과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내신도 수능도 시작은 학교 교과서 수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교과서 진도특강으로 혼자서 복습해보면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다. 주요 핵심내용을 교과서마다 다른 자료와 설명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주며 내신 공부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마. 고1·2를 위한 학교시험대비 강좌

시험 대비 공부할 과목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기 완성 특강을 추천한다.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 정리와 학교 선생님의 실제 학교시험 출제 노하우로 내신 대비 유형을 총정리하는 <학교 시험 3주 완성>, 출제 가능한 문항을 실제 학교 시험 구성과 동일하게 제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학교시험 예상 모의고사>로 학교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7.2. 입시 및 수시 강좌

가. 입시 대비 커리큘럼과 독서 활동 대비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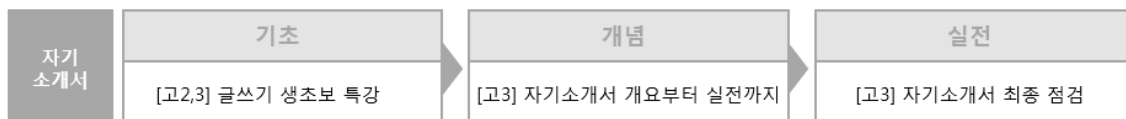
‘꿈이 없어요.’, ‘무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입이 막막하다면 EBSi 대학별 입시 커리큘럼을 이용해 보자. EBSi 사이트에서는 비싼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입시 대비가 가능한 종합 솔루션 강좌를 제공한다.

대학별로 전형의 종류와 진행 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다 각기 다르므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기거나 교과, 비교과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내가 지원했을 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이 전형에서는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학습 계획을 세우고 강좌를 수강하면서 전문 선생님들의 핵심 노하우와 유의할 사항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막막했던 입시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서 활동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다. 입시를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독서 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 도서> 강좌를 들어 보자.

나. 자기소개서 대비 커리큘럼



EBSi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개념 강좌와 실전 최종 점검 강좌를 통해 혼자서도 자신만의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글쓰기가 겁나는 글쓰기 초보자들은 <글쓰기 생초보 특강> 강좌를 통해 기초를 완성한다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면접 대비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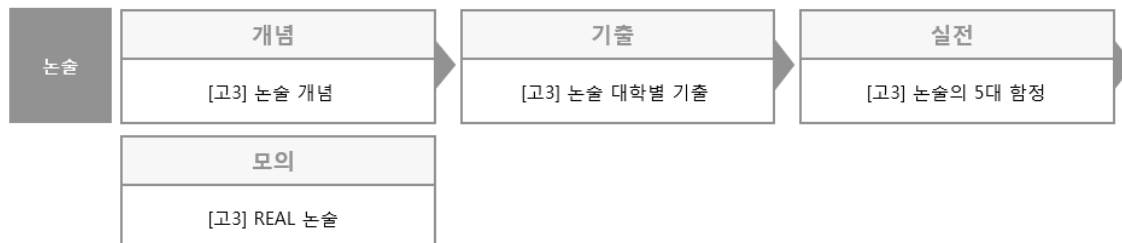


면접은 대학에 따라 전형 유형과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과 출제 경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실전 연습과 모의 면접이 중요하다. EBSi에서는 면접의 기초, 개념, 기출, 실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실전 면접 연습이 가능한 <REAL 면접> 강좌가 8월 오픈될 예정이다.

라. 논술 대비 커리큘럼과 1:1 논술 첨삭 서비스

1) 논술 대비 커리큘럼

논술 전형은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며, 대학별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출제 유형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 EBSi는 초보를 위한 논술 개념 강좌부터 대학별 최신 기출을 다루는 실전 강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2) 1:1 논술 첨삭 서비스

매주 새로운 논제를 만나보자!

1:1 맞춤 논술첨삭

EBSi 1:1 논술첨삭 서비스

- 1:1 논술첨삭 서비스와 함께 수시 준비해요! -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새로운 논제 OPEN!

EBSi 사이트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별 기출 논제에 대한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논술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목별, 유형별로 논제가 제공되어 다양한 논술 유형에 대비할 수 있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1:1 피드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마. 적성고사, 경찰대/사관학교 대비 커리큘럼

적성 고사	개념	기출
	[고3] 적성고사 개념&실전	[고3] 적성고사 대학별 기출
경찰대/ 사관학교	개념	기출
	[고3] 경찰대/사관학교 특강	[고3] 경찰대/사관학교 기출

내신·수능 3~5등급이라면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 대입 틈새 전략을 노려볼만 한다. 적성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전공 적성 시험으로, 수능 보다 난이도가 낮은 수능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EBSi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개념 강좌와 기출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경찰대/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 대비 특강과 최신 기출 분석 강좌를 제공한다. 난도가 높고, 시험 시간도 수능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연습은 필수다.

VIII

EBSi 서비스

VIII. EBSi 서비스

EBSi 서비스

가. EBSi 소개



국가대표 고교사이트, EBS 고교강의(EBSi)는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품격 동영상 강의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다.

학생 맞춤형 영역/학습 단계/시리즈별 강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입 정보 및 수시 서비스, 대입 전문 선생님과 1:1 대입 상담 서비스, 문제은행 서비스를 통한 실전 대비 기출문제 풀이 서비스까지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나. 사이트 이용



선생님, 모든강좌는 고1,2,3 선택에 따라 각 학년에 맞는 내용으로 서비스되며, EBS 교재, 입시정보, 기출문제, 맞춤학습은 공통 서비스로 학년 선택에 상관없이 통합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강좌 상세페이지에서는 강의 수강은 물론, 학습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화질/고화질로 강의를 선택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버퍼링이 심한 경우,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EBSi는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창에 m.ebsi.co.kr을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마이 메뉴에서도 내가 수강 중인 강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의 나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통합검색에서는 찾고 싶은 검색어를 한 글자만 입력해도 관련 검색어를 추천해주고, 문항코드 검색도 한 번에 가능하다. 듣고 싶은 강좌 선택, 강의별 질문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입시 뉴스와 입시설명회 다시보기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라. DANCHOO 맞춤학습

<p>문제추천</p> <p>“단추가 다 맞춰줄게” 내가 원하는 분류에 맞는 나만의 맞춤 문제를 추천합니다.</p>	<p>시험지만들기</p> <p>“단추가 다 만들어줄게” 나에게 맞는 유형과 난이도를 선택하여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p>	<p>시험지리그</p> <p>“네 실력을 보여줘” 내가 만든 시험지를 공유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만든 시험지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p>	<p>강좌추천</p> <p>“단추가 더 채워줄게” 많은 강좌 중 나에게 맞는 강좌를 추천합니다.</p>	<p>문제검색</p> <p>“단추가 다 알려줄게” 문제코드 및 스마트북 서비스를 통해 모르는 문제를 확인하세요. ※EBSi 오른쪽 하단의 단추를 클릭하세요.</p>
--	--	---	--	--

EBSi에서는 비효율적인 학습에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DANCHOO>를 서비스하고 있다. ‘단추’는 맞춤형 추천 문제 및 강좌로 영역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검색”에서는 문제 사진을 올리거나 문항코드를 입력하면 챗봇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과 해설지를 찾아 보여준다. 해설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해설 영상 속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보충해보자. “문제추천”은 최소 과목, 최대 중분류까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522,582개의 EBS 교재 및 기출문제 중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준다. 추천 문제를 통해 시험지도 만들고, 학습현황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재 학습 수준을 설정하면, 수준에 맞는 문제 및 강좌를 추천해준다. “강좌추천”은 나의 학습 행태 및 친구들이 선호하는 강좌 등을 바탕으로 36만개 EBS 교재 및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를 추천을 해준다. 학습 결과에 따라 나의 영역별/과목별/단원별 예상 정답률, 강·약점 TOP 5, 나와 동일한 학년 친구들이 많이 풀 문제 TOP 5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습현황에서는 나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 눈에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마. 5분 개념



#단지 5분!

소 중 한 5 분 을 경 험 하 세 요

5분개념

추천영상

당신의 지식을 채워줄 5,742 개의 클립 영상

이머지로 풀이 돕는 영 단어 50강 그림으로 이해하는 단어의 연 결과 어	박스원의 생명과학 스 캐치북 이러한 생명과학 공식을 간접 으로 통해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과학의 힘	6분 통째로 사회 생활과학 사제대 통째로 한정으로 통째로 한정 한정	듀나TV 핵심 100 한국사 한국사 이해 해, 이해해 중간(중) 중간(중) 중간(중) 중간(중) 중간(중) 중간(중)
100% 고득점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Real 통합과학 실험 과학에 대한 과학의 힘 과학에 대한 과학의 힘	[매주리얼] 핵심만 국 문, 국문 이러한 통합과학의 힘 이러한 통합과학의 힘	[매주리얼] 핵심만 국 문, 국문 이러한 통합과학의 힘 이러한 통합과학의 힘
일러문법 모든 풀이법 (주제 나열)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일러문법 모든 풀이법 (주제 나열)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문항(문) 하나로 고득점	[전지사 TOP 15] 일일 하는 전지사 이러한 전지사의 힘 이러한 전지사의 힘	[국어 TOP 200] OK 수 능국어 '독수' 수 능국어 '독수' 수
지구과학 3D 특강 과학의 힘으로 이해해 과학의 힘으로 이해해	[전문 물리] 물리 고교 이러한 물리의 힘 이러한 물리의 힘	[전문 물리] 물리 고교 이러한 물리의 힘 이러한 물리의 힘	[사람 개념스마트] 이 전통 물리, 물리 전통 물리, 물리

EBS에서는 자투리 시간 및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5분 특강> 클립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클립영상이란 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된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로 과목별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다.

바. 듀나공감(<http://u.ebsi.co.kr>)

EBS에는 선생님과 소통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듀나공감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통해 EBS로 공부하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교재가 출시되거나 학평·모평이 다가올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선물을 제공하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모해보자.

EBS와 함께

듀나공감

커뮤니티 | 설문조사 | 꿈장학생 | 듀나멘토링 | 듀나TV | 이벤트

EBS 모의고사 로드맵! 장학생 도전!



EBS MATH



EBS English

사. EBS 온/오프라인 입시설명회

공부는 결국 진학과 연결된다.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BS에서는 다양한 분석 정보 및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입시설명회가 궁금하다면 예정 설명회에서 시간과 장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들었던 입시설명회는 행사 후 1주일 이내로 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의 정보 알림 수신 설정'을 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BS에서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지역으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를 대신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입시설명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전 지역 맞춤형 입시설명회뿐 아니라 예체능, 사관학교, 특성화대학교, 공부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콘텐츠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입시설명회

공유

2022학년도 입시설명회

수능 D-DAY

실수하기 쉬운 시험장 유의사항

2022학년도

현직 한의사에게
듣는 수험생
건강관리법

21.10.19

2022학년도

[온라인 입시]

수능 D-DAY
실수하기 쉬운
시험장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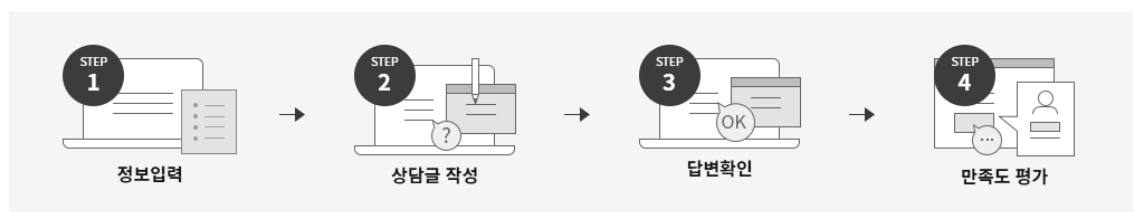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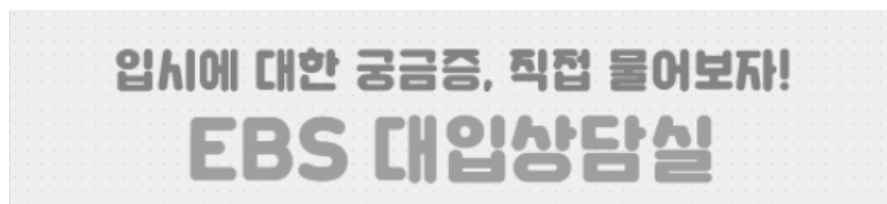
21.10.15

전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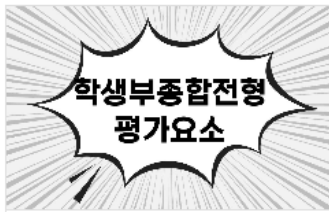
아. EBS 대입상담실

강좌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EBS 대입상담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EBS 대입상담실에서는 수시, 정시, 입시, 진로, 학습법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대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글을 작성하면 EBS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이 무료로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자. 입시 카드뉴스

입시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발맞춰 꼭 알아야하는 정보, 정확한 뉴스들만을 가져와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입시 카드뉴스가 있다. <입시 카드뉴스>는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차.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2020년부터 시작된 EBS 월간 입시는 매거진 형식의 VOD 콘텐츠이다. 월간입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오픈되는 콘텐츠로, 2021년부터는 대학교 학식과 랜드마크 등을 소개해주는 부록의 월간 학식도 함께 하고 있다. 월간 입시는 ‘고3이지만 괜찮아’ 코너로 고3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며, ‘신박한 고교 생활’ 코너로 고1,2를 위한 내용도 다뤄준다. 또한, 매월 핫이슈 코너를 통해 재미있는 이슈를 공부와 접목시켜 알려주는 코너도 있다. 매월 수강후기 이벤트가 있으니 참고하여 소소한 선물을 받아보자.



예비 고3(고1,2)을 위한 EBS 입시자료집

발행처 : EBS

발행일 : 2021.11.10.

기획

김경남(EBS 입시정보담당 ECP)

김진화(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이진주(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집필 및 검토

김성길(EBS 진로진학 대표강사)

정미나(EBS 국어영역 대표강사)

정승익(EBS 영어영역 대표강사)

정종영(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최은진(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강승희(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박봄(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세훈(EBS 한국사·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이진웅(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소현(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주원(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정영일(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차영(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 www.ebsi.co.kr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EBSi(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